

# 해외 보험동향 2021년 봄호

| 총괄 김석영 (선임연구위원)

| 해외 보험동향

일본	이상우 (수석연구원)
중국, 홍콩, 대만	이소양 (연구원)
유럽	손민숙 (연구원)
동남아, 중남미	장윤미 (연구원)
북미	손지영 (연구원)



# ■ 목차

---

## I. 해외 보험산업 제도 현황

1. 영국 대법원의 기업휴지보험 테스트 케이스 판결 / 1
2. 유럽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동향 / 5
3. 인도 보험시장 선진화 정책 / 8
4. 기후변화에 대한 보험 관련 기구의 대응 / 11

## II. 해외 보험산업 시장 현황

1. 대만 보험산업의 M&A 동향 / 14
2. 중국 개인연금시장 동향 / 18
3. 일본 치매보험상품과 서비스 개발 현황 / 21
4. 일본 마이넘버제도와 개인별 의료건강 정보 활용 / 24
5. 코로나19 백신 관련 보험 이슈 / 27

[특집] 중남미 보험시장 현황 / 30

[특집] 해외 판매채널: 미국 / 42

[부록] 해외 보험산업 통계 / 56



---

# I. 해외 보험산업 제도 현황

---

## 1. 영국 대법원의 기업휴지보험 테스트 케이스 판결

- 코로나19로 기업휴지보험(BI: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자 영국 금융감독당국(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라 함)은 테스트 케이스를 진행함<sup>1)</sup>
  - 기업휴지보험 청구가 영국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 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집단 소송도 꾸준히 급증함에 따라 일률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됨
  - 영국은 신속성 및 명확성 확보를 위해 테스트 케이스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9월 15일 고등법원 판결<sup>2)</sup>이, 2021년 1월 15일 대법원의 판결<sup>3)</sup>이 내려짐
  
- 영국 8개 주요 보험회사들<sup>4)</sup>을 대상으로 21개 유형의 기업휴지보험약관<sup>5)</sup> 중 대표적인 샘플을 선정하여 테스트 케이스를 진행하였으며,<sup>6)</sup>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금 청구 가능성 및 보험금 지급액이 높아짐
  - 논쟁이 많은 주요 조항은 질병(Disease Clauses), 접근금지(Prevention of Access Clauses), 혼합형(Hybrid Clauses), 추세 조항(Trends Clauses)으로 크게 네 가지 유형임
  - 대표적인 논쟁 대상 조항은 '질병' 조항과 '접근 금지' 조항으로 고등법원은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 영업 중단이 초래되었으며, 보험약관상 대부분이 보장을 받는다고 판결하였음
    - 6개 보험회사의 12개 약관이 이에 해당하였으며, 보험회사들은 11개 약관에 대해

---

1) FCA(Last update 2021. 2. 15),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2) The High Court(2020. 9. 15), Case No: FL-2020-000018

3) The Supreme Court(2021. 1. 15), Case ID: UKSC 2020/0177

4) Arch Insurance (UK) Ltd/ Argenta Syndicate Management Ltd/ Ecclesiastical Insurance Office Plc/ MS Amlin Underwriting Ltd/ Hiscox Insurance Company Ltd/ QBE UK Ltd/ Royal & Sun Alliance Insurance Plc/ Zurich Insurance Plc/

5) Arch 1개, Argenta 1개, Ecclesiastical 2개, Hiscox 4개, MS Amlin 3개, QBE 3개, RSA 5개, Zurich 2개

6) FCA(2020. 6. 9),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TEST CASE REPRESENTATIVE SAMPLE OF POLICY Wordings"

### 항소를 제기함

- 대법원은 보험회사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고등법원보다 더 확장된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판결을 내림
  - 판결에 따라 60개 보험회사의 700여 개 상품에 가입 중인 37만 명의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6개 보험회사의 14개 보험약관에 대해 법적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됨<sup>7)</sup>

### ■ 대법원에서 논의된 항소 이유는 6가지이며,<sup>8)</sup> 첫 번째는 질병(The Disease Clauses) 조항임

- 신고 대상 질병의 정의 및 위험 발생과 업무 중단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임
-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건물 반경 25마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만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그 외의 지역은 제외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대법원은 ‘사업장 반경 25마일 이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결함

### ■ 두 번째는 접근 금지 및 혼합 조항(The Prevention of Access and Hybrid Clauses)으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 개입의 성격에 법적 강제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금지 또는 사용 제재가 완전한 폐쇄를 필요로 하는지가 쟁점임

- 대법원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 개입의 성격이 법적 효력이나 강제성을 요하지 않으며, 정부나 기관의 명령 또는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 또는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고 예상되면 충분하다고 판결함
- 폐쇄의 정의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장에 대한 완전한 폐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즉, 부분적으로 영업(예: 테이크아웃)을 하고 있는 경우라도 영업에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약관상의 사용불능(inability to use), 접근 금지(prevention of access), 중단(interruption)에 해당하여 보험금 청구가 가능함

### ■ 인과관계(Causation)와 관련하여 고등법원은 인과관계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인과관계에 주목함

7) FCA(2021. 1. 15), “Supreme Court judgment in FCA’s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test case”

8) Herbert Smith Freehills(2021. 1. 15), “Supreme Court hands down judgment in FCA’s Covid-19 Business Interruption Test Case”

- 보험회사들은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 하더라도 팬데믹으로 인해 보험계약자들이 영업 중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도의 손실을 입었을 것이므로 영업 중단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여 책임이 없음을 주장함
- 그러나 대법원은 ‘질병 발생→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영업 중단→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팬데믹이 면책사항이라 할지라도 보험약관상 보장되는 정부의 개입 또는 명령과 결합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 추세 조항(The Trends Clauses)<sup>9)</sup>에 대해서는 조항 적용 시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보험회사들의 배상의무를 인정하였으며, 이 판결로 인해 이전에 비하여 배상 범위가 더욱 확대됨

- 보험회사들은 약관상 보장되는 영업 중단 발생과 관계없이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피해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음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추세 조항 적용 원칙을 제시하며 보험회사들의 주장을 배척함
  - 추세 조항은 손실을 계량화하기 위해 약관에 포함된 시스템의 일부임
  - 추세 조항의 해석은 가능한 한 약관의 보장 조항과 일관되게 해석되어야 함
  - 추세 조항을 보장 조항과 일관되게 해석한다는 것의 의미는 계량 시스템이 사실상 배제 조항의 형태로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추세 조항으로 인해 보장 조항이 제공하는 보장 범위를 제한하지 않도록 해석한다는 것을 의미함

■ 고등법원과 달리 대법원은 트리거 전 손실(Pre-trigger Losses)에 관하여 배상금액 산정 시 추세 조항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수익을 토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함

- 고등법원은 보험 위험이 초래되기 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이익 또는 매출 감소, 비용 증가가 있었고 측정이 가능하다면 보상 금액 산정 시 이를 고려하여 축소된 이익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한다고 판단하였음
- 정부의 사업장 폐쇄 명령(2020년 3월 20일) 이전에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이익이 감소하고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상 금액을 산정할 경우 보험계약

9) 보험약관상 보장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지속되었을 것이라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임

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제공되지 않았음

- 이전에는 인과관계 및 추세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Orient-Express 호텔 판결<sup>10)</sup>에 의존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Orient-Express 호텔 판결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 Orient-Express 호텔 사건은 허리케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뉴올리언스의 호텔과 관련한 사건으로, ‘허리케인 발생→영업 중단→손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주요 논점이었음
    - 이번 대법원 판결과 달리 허리케인으로 호텔이 손상된 부분은 명확하여 ‘물리적 손상’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음
    - 보험회사들은 호텔의 물리적 손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허리케인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황폐화로 영업 중단이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없어 보상할 수 없음을 주장함
  - Orient-Express 호텔 판결에서는 보험회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보험약관상 보장된 위험(영업 중단)과 보장되지 않는 위험(허리케인 발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보험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장된 위험을 근거로 청구한 보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을 확인함
  - 또한 추세 조항 적용 시 허리케인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수익을 예상하여 배상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었을 것이라고 판결함
- FCA는 판결 이후 보험계약자의 판결에 대한 이해를 돕는 Q&A, 팬데믹을 보장하는 기업휴지보험 유형 목록, 코로나19의 입증에 대한 증거 및 방법론을 설명한 지침<sup>11)</sup> 등을 발행하여 보험계약자들의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sup>12)</sup>
- 그러나 FCA의 테스트 케이스는 모든 가능한 분쟁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며,<sup>13)</sup> 영국 대법원의 판결로 주변 국가들이 기업휴지보험과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대법원 판결의 목적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회사에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10) Orient-Express Hotels Ltd v Assicurazioni General SpA [2010] EWHC 1186 (Comm); [2010] Lloyd's Rep IR 531

11) FCA(2020. 3. 3), “Final Guidance: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test case-proving the presence of coronavirus(Covid-19)”

12) Jdsupra(2021. 1. 26), “COVID-19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Test Case: UK Supreme Court Promises Policyholders Pandemic Payday”

13) FCA(2021. 1. 15), “Supreme Court judgment in FCA’s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test case”

주요 약관 조항에 대한 해석 및 보험금 지급 근거를 제공함

- 대법원 판결로 인해 보험약관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기대하였으나, 보장 범위와 보장 기간, 보장 한도 및 손실 산정 방식에 대한 합의가 없어 여전히 논란이 지속됨<sup>14)</sup>
- FCA의 판결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변 국가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다국적 보험회사의 경우 진출 중인 여러 국가에서 영국과 동일한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sup>15)</sup>
  - 캐나다 보험국은 영국 대법원 판결은 물리적 손상이 없는 경우의 기업휴지보험 관련 내용이므로 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하였으나, 전문가들은 캐나다 법원이 유사한 단어의 해석 시 영국 법원의 판결을 따르는 경향이 있으므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주장함
  - 미국의 경우 보험약관상 문구가 영국과는 차이가 매우 크지만 보험계약자들이 영국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음
  - 호주의 경우 FCA 판결에 따라 주요 보험회사인 QBE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상금 지급 대비 규모를 6억 달러에서 7억 8500만 달러로 확대하였으며, 앞서 뉴사우스웨일스 법원도 동일한 취지로 판결한 바 있음

## 2. 유럽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동향

- 전 세계적으로 킥 경제(Gig Economy)<sup>16)</sup> 및 온디맨드(On-Demand Economy) 경제<sup>17)</sup> 현상이 확대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증가하였으며, 최근 해외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남<sup>18)19)</sup>

14) Insurance Post(2021. 2. 5), "Analysis: More uncertainty for BI policyholders over losses beyond first lockdown"

15) Insurance Business(2021. 2. 3), "Major business interruption ruling and its impact on the global insurance industry"

16) 노동 시장에서 필요에 따라 수요 발생 시 임시로 계약을 맡고 노동 계약을 하는 형태의 경제 방식으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때에 일시적으로 일을 하는 임시직을 뜻함

17) 플랫폼과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수요자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를 뜻함

18) Insurance Journal(2021. 2. 17), "Spain Prepares Labor Laws that Could Force Food Delivery Apps to Employ Gig Workers"

19) Insurance Journal(2021. 1. 28), "Conventional Unemployment Insurance Does Not Work in the Gig Economy"

- 영국에서는 2021년 2월 우버(Uber) 운전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sup>20)</sup>이 내려짐
- 스페인 대법원 또한 2020년 9월 글로보(Glovo) 배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sup>21)</sup>을 내렸으며, 스페인 정부는 판결을 성문화하기 위해 노동법 개정을 준비 중임
- 유럽위원회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EU 지역 전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입법 권고안을 발간할 예정임<sup>22)</sup>
- 유럽뿐만 아니라 뉴욕 법원 및 미국 행정 관리자들 또한 우버 운전자들에 대한 실업수당 자격을 인정하였으며, 미국 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안<sup>23)</sup>을 발의함<sup>24)</sup>

■ 영국 대법원 판결에서는 우버 운전자가 기업을 위해 개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worker)인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시간(working time) 제공에 대한 최저임금 수여 자격이 있는지가 주요 논점이었음<sup>25)</sup>

- 우버는 운전자들을 독립된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임금, 유급 휴가, 휴식 시간 등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 왔음<sup>26)</sup>
- 우버는 앱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고 운전자로부터 서비스 요금을 징수할 뿐, 탑승 계약은 우버 운전자와 승객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버 운전자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의 노동을 제공하므로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우버와 종속적인 계약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음
- 그러나 대법원은 우버와 운전자들 사이에 서면 계약이 없었다 하더라도 법적 관계의 성격이 추론되며, 중개인 역할을 할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음
  - 즉, 운전자와 승객이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우버가 승객과 계약을 맺고 운전자를 고용하여 예약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함
  - 영국 고용권리법<sup>27)</sup> 230(3)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계약에 따

20) Supreme Court(2021. 2. 19), Case ID: UKSC 2019/0029

21) Poder Judicial Espana(2020. 9. 23), “El Tribunal Supremo declara la existencia de la relación laboral entre Glovo y un repartidor”

22) Insurance Journal(2021. 2. 17), “Uber Urges EU to Recognize Gig Business Model as UK Court Is Set to Rule”

23) Protecting the Right to Organize (PRO) Act (H.R. 842)

24) Insurance Business(2021. 3. 4), “Proposed legislation could drastically affect insurance employment”

25) Supreme Court(2021. 2. 19), Case ID: UKSC 2019/0029

26) Insurance Journal(2021. 2. 17), “Uber Urges EU to Recognize Gig Business Model as UK Court Is Set to Rule”

27) Employment Rights Act 1996(2020. 6. 22 개정)

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인 개인을 포함함

-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근거를 통해 운전자들이 승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우버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통제되며, 운전자는 종속적인 위치에 있음을 확인함
  - 첫째, 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우버이고, 그 이상의 요금을 운전자가 청구할 수 없음
  - 둘째, 계약 조건 및 비용에 대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버임
  - 셋째, 승차 요청 수락에 대해 운전자가 아닌 우버가 결정권을 가짐
  - 넷째, 서비스 제공 방식을 통제하는 것은 우버이며, 승객들의 평가를 통한 운전자 등급 시스템을 사용하고 운전자가 일정 등급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해고가 가능함
  - 다섯째, 우버가 운전자와 승객 사이의 소통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제한하며, 개별적인 승차 계약 외에 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함

■ 스페인 대법원은 9월 판결에 이어 11월에는 85개 배달 업체와 배달원 사이의 근로 종속성을 인정하는 판결<sup>28)</sup>을 내렸으며, 노동법이 개정되면 음식 배달 플랫폼들이 소속 배달원들을 정식 근로자로 고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sup>29)</sup>

- 노동법의 개정은 우버 이츠(Uber Eats), 딜리버루(Deliveroo), 글로보(Glovo)와 같은 배달대행업체들이 유럽 지역 3만 명의 배달원들에게 임금, 사회적 보장, 실업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함
- 의회를 통해 법률로 제정되는 절차를 밟을 것인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특별한 반대가 없을 경우 몇 달 내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 스페인 노동부 전 장관인 Maria Luz Rodriguez에 따르면 이번 개정이 근로관계 종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자영업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논쟁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으나 성장 중인 배달 산업의 사업 모델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고용 부담이 커지는 경우 오히려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음<sup>30)</sup>

28) Poder Judicial Espana(2020. 11. 26), “El Juzgado de lo Social nº 4 declara la existencia de relación laboral entre Glovo y 85 repartidores de Cantabria”

29) Insurance Journal(2021. 2. 17), “Spain Prepares Labor Laws that Could Force Food Delivery Apps to Employ Gig Workers”

30) Insurance Journal(2021. 2. 17), “Spain Prepares Labor Laws that Could Force Food Delivery

- 법무법인 Leigh Day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 판결로 운전자 1인당 평균 12,000파운드(한화 약 1,900만 원)의 최저 임금 및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보상금 지급이 예상되고 2,000명 이상의 청구가 예상됨<sup>31)</sup>
  - 영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우버의 주가는 3.4% 하락하였음
- 스페인의 경우 노동법 개정으로 직접 고용이 의무화되는 경우 임금 및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의 부담으로 배달원의 2/3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음
- 캘리포니아의 경우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AB5(Assembly Bill No.5) 법안이 2020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나, 주민 투표를 진행하여 우버 및 리프트(Lyft) 운전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운전자를 자영업자로 분류함

### 3. 인도 보험시장 선진화 정책

- 최근 인도는 보험시장 선진화를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한도 증가, 외국계 재보험사의 인도 진출 절차 간소화, 보험상품 표준화 등의 각종 정책을 시행함

#### 〈외국인직접투자 한도 증가〉

- 2021년 2월 인도 재무장관은 인도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한도를 기존의 49%에서 74%로 올릴 것을 제안함<sup>32)</sup>
  - 동 안은 2021년 인도 연합 예산안<sup>33)</sup>과 관련한 내용에서 발표되었으며 해외 자본 유입을 통해 인도 보험침투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19년 인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험침투율은 각각 2.8%와 0.9%로 글로벌 평균(생명보험 3.2%, 손해보험 3.8%) 대비 낮음<sup>34)</sup>

Apps to Employ Gig Workers”

31) Insurance Journal(2021. 2. 19), “UK Court Rules Uber Drivers Should Be Classed as Workers, in Blow to Business Model”

32)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policy/fm-proposes-increase-in-fdi-cap-in-insurance-sector-to-74/articleshow/80626076.cms>

33) 인도 연합 예산은 인도 공화국의 연간 예산으로 연간 재무제표라고도 불림. 인도 정부는 4월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되기 전 매년 2월 1일 당해 예산안을 발표함

34) Sigma explorer

- 인도 정부는 2000년대 들어 보험 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한도를 점차적으로 증가 시켜왔음
  - 2000년 외국인직접투자 한도를 26%까지 허용하였고 뒤이어 2015년 이를 49%로 확대시킨 바 있음<sup>35)</sup>
  - 2019년 인도 보험 규제 당국인 IRDAI(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는 보험중개서비스업자<sup>36)</sup>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한도를 철폐하기로 밝힘<sup>37)</sup>
- 이 같은 안이 시행될 경우 상당량의 자본이 보험시장에 유입되어 보험 업계의 언더라이팅 능력 및 지급여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신용등급 회사 무디스 관계자는 인도 보험회사 등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sup>38)</sup>
  - 신규 자본 유입으로 보험 판매 채널 및 인프라가 확대되고 보험회사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어 고객서비스 향상이 기대됨

#### 〈외국계 재보험사의 인도 진출 절차 간소화〉

- 2021년 1월 IRDAI는 외국계 재보험사의 인도 진출에 대한 규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가이드라인 작성하여 발표함<sup>39)</sup>
  - 이는 외국계 재보험사가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참조 번호(Filing Reference Number)<sup>40)</sup>를 취득함에 있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2016년 작성된 기존 내용(No. IRDAI/NL/GDL/RIN/017/ 01/2016)을 대체함
  - 변경된 안을 통해 인도에 진출하는 외국계 재보험사의 서류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행정 처리를 위한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35)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policy/fm-proposes-increase-in-fdi-cap-in-insurance-sector-to-74/articleshow/80626076.cms>

36) 보험중개서비스업자는 보험중개인, 재보험중개인, 보험 컨설턴트, 보험회사 에이전트, 사고조사인, 손해사정사 등을 포함함

37) <https://www.mondaq.com/india/insurance-laws-and-products/965630/fdi-in-insurance-intermediaries-an-update--july-14-2020>

38) <https://www.newindianexpress.com/business/2021/feb/01/hike-in-fdi-cap-in-insurance-to-attract-more-capital-increase-penetration-say-insurers-2258066.html>

39) [https://www.irdai.gov.in/ADMINCMS/cms/whatsNew\\_Layout.aspx?page=PageNo4350&flag=1](https://www.irdai.gov.in/ADMINCMS/cms/whatsNew_Layout.aspx?page=PageNo4350&flag=1)

40) 인도에서 참조번호(FRN)가 없는 재보험사는 재보험 영입이 금지됨

### 〈보험상품 표준화〉

■ IRDAI는 보험시장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보험상품의 표준화 작업을 시행함

- 2020년 12월 이후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품으로는 개인사고보험, 여행보험, 화재 및 관련 위험 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즉시연금보험, 백터매개질병건강보험<sup>41)</sup>이 있음

〈표 1〉 2020년 12월 이후 인도 IRDAI 보험상품 표준화 관련 발표 내용

번호	관련 상품	내용	발표일
1	개인사고보험	개인사고보험 표준화를 위한 개인사고보험 안내서 초안, 표준 약관 및 고객 정보 안내서	2020-12-09
2	여행보험	여행보험상품 표준화를 위한 안내서 초안, 표준 약관 및 고객 정보 안내서	2020-12-28
3	화재 및 관련 위험 보험	일반 주택,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건물 및 내부 시설에 대한 화재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표준 보험상품과 안내서	2021-01-04
4	전문인배상책임 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상품 표준 약관(소급일, 보상한도 등의 내용 포함)에 관한 보고서	2021-01-19
5	즉시연금보험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개인용 즉시연금보험 (Saral Pension)에 관한 표준 상품 지침(가이드라인)	2021-01-25
6	백터매개질병 <sup>42)</sup> 건강보험	손해보험회사 및 건강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백터매개질병 건강보험에 관한 표준 상품 지침(가이드라인)	2020-02-03

자료: 인도 IRDAI

■ 이 밖에도 감독당국은 2021년 1월 사이버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2021년 2월 무인항공기시스템(드론) 보험상품 설계와 관련한 표본안을 공개하며 신규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음

41) 백터매개질병이란 모기, 진드기 및 벼룩과 같은 절지 동물이 인간과 다른 동물에게 전염시키는 감염으로 인한 질병을 의미함

42) [https://www.irdai.gov.in/ADMINCMS/cms/frmwhats\\_List.aspx](https://www.irdai.gov.in/ADMINCMS/cms/frmwhats_List.aspx)

## 4. 기후변화에 대한 보험 관련 기구의 대응

- McKinsey에 따르면 기후 관련 위험 규모는 현재 전 세계 GDP의 약 2%에 달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전 세계 GDP의 4%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sup>43)</sup>
  - 2017년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에 상륙하며 1,250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입혔으며, 2019~2020년 호주 산불은 44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혔음
- 2015년 전 영국 중앙은행 총재 Mark Carney은 ‘지평선의 비극(Tragedy of the Horizon)<sup>44)</sup>’ 개념을 사용하여 기후변화가 금융 안정에 위협적이라고 느끼는 시점은 이미 대응하기 늦은 시점임을 강조하며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함
  - 이를 기점으로 국제기구와 미국 보험 관련 기관들은 보고서 발간, 설문조사 시행 등을 통해 기후 관련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 위험을 감독 프로세스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함
-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설립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는 기후변화 관련 문제에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음<sup>45)</sup>
  - 2015년 9월 FSB는 G20의 요청에 따라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여 기후변화 관련 문제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당해 12월 태스크포스(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를 설립하여 금융시장 참여자에게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일관되게 제공하기 위한 권고안을 입안함
  - 보고서는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 시나리오 분석 등 금융업계에 대한 지원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부록으로 비금융부문을 위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음
  - 2017년 보고서 초안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3편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속적으로 기후 변화 관련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43) Mckinsey(2020), "Climate Change and P&C Insurance: The Threat and Opportunity"

44) 기후변화의 파국적 영향이 현 세대의 지평을 넘어 대응하기에 이미 늦은 미래 세대에 전가됨을 의미함

45) <https://www.fsb.org/>

-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는 2020년 10월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와 함께 각국의 보험 감독 프로세스에 기후 관련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들을 개발함<sup>46)</sup>
  - 해당 지침들은 보험회사가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표준이나 기준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 관련 위험을 감독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모범 사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현재 초안은 감독자 검토 및 보고, 기업 지배구조, 위험관리, 투자, 공시 등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피드백을 거쳐 마무리될 예정임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는 2020년 11월 재무안정보고서(Financial Stability Report)를 통해 금융 기관과 관련된 기후변화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현재 기후 관련 위험을 분석하는 초기 단계에 있음
  - 연준은 기후 관련 위험이 금융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식별하고, 위험도를 평가하는 초기 단계에 있음
  - 연준 이사회 위원인 Lael Brainard는 기후변화가 재정 안정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 기관이 이에 대비하여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 측정, 통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권고함
  
-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NAIC)는 기후 및 복원력 태스크포스를 설립하여 주별 보험 감독기관, 보험업계의 기후 관련 위험의 대응 방식을 평가하고 의견을 조율함<sup>47)</sup>
  - NAIC의 태스크포스는 기후 위험과 관련된 보험회사와 재보험사의 모델링 방식, 보험 계약 및 투자, 지급 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타 금융 부문이나 국제 표준과 연계하여 평가함
  
- 캘리포니아 보험국(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은 2009년부터 미국 내 보험회사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조사하는 Climate Risk Survey를 매년 시행하고 있음<sup>48)</sup>
  - 현재까지 미국 보험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보험회사 1,000여 개를 조사하고 있으

46) <https://www.iaisweb.org/>

47) [https://content.naic.org/cmte\\_ex\\_climate\\_resiliency\\_tf.htm](https://content.naic.org/cmte_ex_climate_resiliency_tf.htm)

48) <http://www.insurance.ca.gov/0250-insurers/0300-insurers/0100-applications/ClimateSurvey/>

며 규제기관, 보험회사 및 기타 관련자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보험업계의 대응 추세, 취약성, 모범 사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평가와 규제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보험회사 또한 기후 관련 위험을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통합시키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

○ 기후변화 대응 기구인 ClimateWise<sup>49)</sup>의 조사 결과, 회원 보험회사들이 기후 관련 위험을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통합시켜 기후변화 대응 수준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TCFD의 권고안에 따라 설정된 원칙들로 측정되는 Climatewise 회원사의 기후변화 대응 점수가 2019년 평균 55%에서 2020년 65%로 증가함<sup>50)</sup>

---

49) 2007년 전 세계 주요국 보험회사들이 조직한 기후변화 대응 기구 ClimateWise는 기후변화 위험 감축에 동참하고 있으며, Aviva, AXA, Munich Re, Prudential, Swiss Re 등의 회사가 참여하고 있음

50) ClimateWise(2020), "ClimateWise Principles Independent Review 2020"

## II. 해외 보험산업 시장 현황

### 1. 대만 보험산업의 M&A 동향

■ 2020년 8월 대만의 대신금융지주회사는 미국 Prudential Life와 대만지사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대만 감독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sup>1)</sup>

○ 2001년 이후 본격화된 대만의 보험산업 M&A는 대만 보험산업을 재편하고 있음

■ 2001년 대만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였으며, 이후 대만 금융회사들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보험회사를 인수함

○ 대만 금융당국은 보험시장이 포화상태로 진입하면서 보험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함

- 2000년에 동업 회사의 합병을 허용하는 『금융회사합병법』, 2001년에 은행, 증권 및 보험의 겸업을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각각 발표함

○ 2001~2003년 8개 금융회사들은 규모의 경제 실현과 회사 간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였으며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를 인수함

〈표 1〉 대만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M&A 동향

지주회사	설립시기	설립 시 보유 자회사	설립 후 인수한 자회사
부방금융지주회사	2001. 12	부방손해보험; 부방생명보험; 대북부방은행; 부방종합증권; 부방은행(홍콩)	2002 부방투신; 2002 대북은행; 2004 홍콩강기국제은행; 2009 안태생명(2009 부방생명과 합병); 2013 중국화일은행
중화개발금융지주회사	2001. 12	중화개발자본; 개기증권; 개기상업은행; 중국생명보험	2002 대화증권; 2002 정화증권; 2013 개기증권; 2014 만태상업은행

1) 自由時報(2021. 2), “台新併保德信案金管會:補件或准駁沒有最後期限”

〈표 1〉 계속

지주회사	설립시기	설립 시 보유 자회사	설립 후 인수한 자회사
국태금융 지주회사	2001. 12	국태생명; 국태세계상업은행	2002 국태세계손해보험; 2002 세계은행; 2014 미국Conning자산관리회사; 2015 홍원증권(홍콩)
중국신탁 금융지주 회사	2002. 5	중국신탁상업은행; 대만생명보험	2002 중신보험중개회사, 중국신탁증권; 2003 만통상업은행; 2011 미국Metlife생명보험; 2013 Manulife 대만지사; 2015 중국신탁생명보험
원대금융 지주회사	2002. 1	원대증권; 원대상업은행; 원대증권; 원대선물; 원대생명보험	2011 보래증권; 2014 국제뉴욕생명보험; 2016 대중상업은행
신광금융 지주회사	2002. 2	신광생명보험; 대만신광상업은행	2004 연신상업은행; 2005 성태상업은행; 2006 신광증권투자신탁; 2018 원부증권
조풍금융 지주회사	2002. 2	조풍국제상업은행; 조풍증권; 조풍금융	2002 배리증권, 중국국제상업은행, 중국손해보험; 2003 중앙국제증권투신; 2006 국제증권투신
제일금융 지주회사	2003. 1	제일상업은행; 제일금융생명보험	2003 일은증권, 명태손해보험 (2005 일본미즈이스미토모로 매각), 건흥투신

주: 여기서 말하는 중국생명보험, 중국손해보험, 중국신탁상업은행, 중국화일은행, 중국신탁증권, 중국국제상업은행은 모두 대만 회사임  
 자료: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함

■ 2008년부터 일부 외국 보험회사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만 시장에서 사업을 철수 또는 축소할 때 대만 금융지주회사들이 외국 보험회사를 인수함

- 글로벌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력 요구가 강화되면서 일부 외국 보험회사들은 자국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하거나 축소함
-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만에 미친 충격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 사업을 강화하려는 대만 금융지주회사는 M&A 매물로 나온 외국 보험회사를 인수함
  - 금융지주회사인 중국신탁지주회사, 중화개발금융지주회사, 부방금융지주회사는 각각 Met Life 대만지사, Old Mutual Life 대만지사, ING 대만지사를 인수함
  - 한편, 사업 다각화를 실시하는 일반지주회사나 일반회사인 윤태지주회사, 삼상지주회사 및 미부건설사는 각각 남산생명보험(AIG 대만법인), Mercuries Life 및 TGL 대만지사를 인수함

〈표 2〉 외국 보험회사의 대만 사업 철수·축소 현황

매각시기	매물 회사	인수 회사
2007. 7	Old Mutual Life 대만지사	중국생명보험(중화개발금융지주회사)
2008. 10	ING 대만지사	부방금융지주회사(부방생명보험)
2009. 2	PCA Life의 보험설계사채널 보험계약 포트폴리오	중국생명보험(중화개발금융지주회사)

〈표 2〉 계속

매각시기	매물 회사	인수 회사
2009. 4	TransGlobe Life 대만지사	미부건설사
2010. 10	Mercuries Life	삼성지주회사
2011. 1	남산생명보험(AIG 대만법인)	윤태지주회사
2011. 3	Met Life 대만지사	중국신탁금융지주회사
2013. 3	PCA Life가 보유한 중국생명보험의 지분	중국생명보험(중화개발금융지주회사)
2013. 6	국제뉴욕생명 대만지사	원대금융지주회사
2013. 7	Manulife 대만지사	중국신탁생명보험(중국신탁금융지주회사)
2015. 6	남산손해보험(AIG 대만법인)	남산생명보험(윤태지주회사)
2016. 6	Zurich 손해보험 대만지사	합태자동차판매회사(합태지주회사)
2017. 10	Aviva가 보유한 제일금융생명보험의 지분	제일금융지주회사
2017. 10	알리안츠생명보험의 전통보험계약 포트폴리오	중국생명보험(중화개발금융지주회사)

주: 전통보험계약은 배당금이 없고 보험료 납입 기간에 보험료 변동이 없는 보험계약을 의미함  
자료: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함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대만 보험회사들이 과거 고금리계약으로 인한 이차역마진 부담으로 M&A 매물로 나왔을 때 보험회사와 금융지주회사들이 인수함
- 이차역마진으로 경영이 부실한 국화생명보험, 행복생명보험과 국보생명보험, 조양생명보험은 각각 TransGlobe Life, 국태생명보험, 남산생명보험에 흡수됨
  - 경영실적이 악화된 대만생명보험과 중국신탁생명보험은 중국신탁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됐으며, 중국생명보험은 중화개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됨
    - 2017년 7월까지 중화개발금융지주회사는 중국생명보험 지분의 56%를 인수함

〈표 3〉 최근 대만 보험산업의 M&amp;A 동향

매각시기	매물 회사	인수 회사
2012. 11	국화생명보험	TransGlobe Life(미부건설사)
2015. 3	행복생명보험, 국보생명보험	국태생명보험(국태금융지주회사)
2017. 1	조양생명보험	남산생명보험(윤태지주회사)
2013. 10	대만생명보험	중국신탁금융지주회사
2015. 10	중국신탁생명보험	대만생명보험(중국신탁금융지주회사)
2017. 7	중국생명보험	중화개발금융지주회사

주: 전통보험계약은 배당금이 없고 보험료 납입 기간에 보험료 변동이 없는 보험계약을 의미함  
자료: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함

- 보험회사에 관한 M&A로 수입보험료 기준 대만 금융지주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상승함
  - 대만 전체 보험회사 수는 2001년 53개사에서 2019년 41개사로 축소됐지만, 금융지주회사가 소유하는 보험회사 수는 2001년 4개사에서 16개사로 증가함
    - 2019년 대만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수는 각각 22개사, 19개사이며, 이들 가운데 금융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수는 각각 9개사, 7개사임
  - 2019년 대만 금융지주회사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각각 64.9% 및 61.6%임
  - 한편, 대만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상위 3개사는 모두 지주회사의 자회사이며 그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50.0% 및 47.2%임
    - 남산생명보험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이며, 나머지 보험회사들은 모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임

〈표 4〉 대만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2019년 기준)

(단위: %)

생명보험회사	시장점유율	손해보험회사	시장점유율
상위 3개사	50.0	상위 3개사	47.2
국태생명보험	19.4	부방손해보험	23.6
부방생명보험	17.2	국태세계손해보험	13.0
남산생명보험	13.4	신광손해보험	10.6
기타 19개사	50.0	기타 16개사	52.8
합계	100.0	합계	100.0

자료: 대만보험사업발전센터

- 보험자회사를 소유하지 않는 대만 금융지주회사의 보험회사 인수로 금융지주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보험회사를 소유하지 않는 대신금융지주회사가 보험회사를 소유하기 위해 미국 Prudential Life와 대만지사 인수 계약을 체결함
    - 대신금융지주회사는 은행업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회사이며 은행, 증권사, 자산관리 회사 등과 같은 자회사가 있음
    - 미국 Prudential Life 대만지사는 2000년 1월에 대만에서 설립됐지만 시장점유율은 2019년 기준 0.5%에 불과함
  - 현재 보험자회사를 소유하지 않는 대만 금융지주회사는 아직 8개사가 있음

## 2. 중국 개인연금시장 동향

- 중국은 한국처럼 3층 구조의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3층의 개인연금은 기금규모에 있어서 1층의 국민연금과 2층의 퇴직연금과 비교할 때 아직 발전 단계 초기에 있음
  - 중국의 국민연금은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 및 도농(都農)주민 기본양로보험으로 구성되며, 2020년 기준 기금규모는 6.1조 위안임<sup>2)</sup>
    - 한편, 중국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보충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회보장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기금규모는 2.6조 위안임<sup>3)</sup>
  - 중국의 퇴직연금은 직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기업연금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입된 직업연금으로 구성되며, 2020년 기준 기금규모는 2.1조 위안임<sup>4)</sup>
  - 중국의 개인연금은 주로 연금저축보험 및 일반연금보험으로 구성되며, 2020년 기준 연금저축보험 및 일반연금보험 규모는 각각 4.3억 위안 및 5,800억 위안에 불과함<sup>5)</sup>
    -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혜택을 제공하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이며 현재 중국 상하이(上海), 푸젠(福建) 및 수저우(苏州) 지역에서만 판매되고 있음

〈표 5〉 중국 연금제도 운영현황

구분	국민연금		퇴직연금 <sup>1)</sup>		개인연금 <sup>2)</sup>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	도농주민 기본양로보험	기업연금	직업연금	연금저축보험	일반연금보험
가입자	9.99억 명		2,548만 명	2,970만 명	-	-
규모	6.1조 위안		2.1조 위안	6,100억 위안	4.3억 위안	5,800억 위안

주: 1) 기업연금의 가입자 수, 직업연금의 가입자 수와 규모는 모두 2019년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임

2) 개인연금 중 연금저축보험 규모는 누적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이며, 일반연금보험 규모는 보험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임

자료: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함

- 중국의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연금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강조됨

2) 新华网(2021. 1), “工伤保障扩容! 我国将推进新业态人员职业伤害保障”

3) 全国社会保障基金理事会(2020. 9), “社保基金年度报告(2019年度)”

4) 前瞻产业研究院(2021. 3), “2020年我国养老保险行业市场现状及发展趋势”

5) 21世纪经济报道(2021. 3), “两会代表委员聚焦第三支柱养老保险建议保险业先行先试”

-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001년 7.0%, 2020년 13.0%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8억 명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억 단위 노인인구를 보유함<sup>6)</sup>
  - 202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 중국은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임
- 중국의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은 2019년 기준 9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소득대체율<sup>7)</sup>이 낮아서 국민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됨<sup>8)</sup>
  - 중국 정부는 2005년에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의 소득대체율 목표치를 59%로 설정했지만 2017년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의 소득대체율은 46%에 불과함
  - 한편,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중국의 국민연금기금은 제도 개선이 없는 경우에 2035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퇴직연금은 대기업, 공기업 및 외국계 기업의 근로자와 정부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생산가능인구<sup>9)</sup>의 6% 만이 가입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노동 인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
- 중국의 경제 성장, 의료기술 발전에 기인한 수명 연장으로 인해 개인의 은퇴 상황에 맞는 다양한 연금상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개인연금의 활성화 가능성이 높음<sup>10)</sup>

■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는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일련의 조치를 발표함

- 2019년 3월 중국 정부는 개인연금상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영국계 생명보험회사인 Heng An Standard Life의 연금보험 전문보험회사 설립을 허가함<sup>11)</sup>
  - 이에 따라 중국 연금보험 전문보험회사는 8개에서 9개로 증가함
  - 또한 2020년 12월 중국 정부는 외국자본의 연금보험 전문회사 설립, 외국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사업 확대에 대한 지원정책을 발표할 예정임을 밝힘<sup>12)</sup>

---

6) UN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사회,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초고령 사회로 정의함  
 7) 소득대체율은 퇴직자 소재 지역의 평균 월급 대비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의 비율을 의미함  
 8) 人民日报(2021. 2), “我国基本医疗保险覆盖超过13亿人基本养老保险覆盖近10亿人”  
 9) 2019년 기준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수는 8억 9,640만 명임; 21세기经济报道(2020. 1), “全国总人口突破14亿人! 劳动年龄人口下降89万”  
 10) 한성원(2019. 9), 「중국 연금보험시장의 현황과 전망」,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11) 中国网财经(2021. 1), “恒安标准人寿加大业务布局专业养老保险公司获批开业”  
 12) 21세기经济报道(2021. 1), “首家合资寿险公司开设的养老保险机构获批开业”

- 2020년 1월 중국 정부는 “사회서비스분야의 상업보험 발전에 관한 의견”을 통해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sup>13)</sup>
  -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수익률이 안정적이고 가입방식이 간단한 연금상품 개발, 일시금수령방식을 제공하지 않는 연금상품 및 양로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금상품 개발, 세액공제혜택을 제공하는 연금상품 확대, 연금상품의 자산운용 규제완화 등이 있음
  - 한편,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외에도 고령자용 보험상품 개발, 양로서비스 활성화, 주택 담보연금제도 개선과 같은 방안을 제시함
- 2021년 2월 중국 금융당국은 개인연금 다양화를 위해 “노후보장형 연금보험 시범시행에 관한 통지”(의견수렴안)를 발표함<sup>14)</sup>
  - 동 의견수렴안에 따르면 노후보장형 연금보험은 2021년 3월부터 베이징 및 저장 지역에서 중국인수생명보험, 중국태평생명보험, 중국태평양생명보험, 태강생명보험 및 신화생명보험이 판매할 예정임

〈표 6〉 “노후보장형 연금보험”의 주요 내용

구분	설명
상품내용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연금 수령 나이는 60세 이상으로 설정함
기간	보험료 적립기간: 5년 이상(보험가입자가 60세인 경우에 제한 없음) 보험금 수령기간: 10년 이상
투자수익	보험료 적립기간에 고정수익+변동수익을 제공함
해약	보험료 적립기간인 1~5년의 계약기간 내에 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적립보험료의 90% 이하임; 6~10년의 계약기간 내에 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적립보험료의 95% 이하임; 10년 이후의 계약기간 내에 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적립보험료의 98% 이하임
	보험금 수령 기간 내에 해약환급금이 0임

자료: 光大证券研究所

- 중국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를 감안할 때 향후 개인연금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정부는 일반연금보험시장 규모를 2025년까지 6조 위안으로 키울 것으로 발표한 바 있음<sup>15)</sup>
  - 2020년 기준 일반연금보험시장규모는 5,800억 위안에 불과함

13)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2020. 1), “关于促进社会服务领域商业保险发展的意见”

14) 光大证券研究所(2021. 2), “《关于开展专属商业养老保险试点的通知(征求意见稿)》点评”

15) 中国银保监会(2020. 1), “关于促进社会服务领域商业保险发展的意见”

### 3. 일본 치매보험상품과 서비스 개발 현황

- 일본은 인구고령화와 치매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치매환자 수는 2015년 525만 명에서 2025년 730만 명으로 증가하여 65세 이상 인구의 20.6%를 차지할 전망이다<sup>16)</sup>
  - 2025년에 치매 예비그룹인 경도인지장애(MCI) 584만 명을 포함할 경우 치매환자가 총 1,314만 명으로 늘어나 65세 이상 인구의 37.0%를 차지할 전망이다
    - 치매환자와 가족을 포함할 경우 최소 2천만 명 이상의 일본인이 치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일본 NHK는 단카이세대<sup>17)</sup> 모두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부터 일본이 ‘치매사회’<sup>18)</sup>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일본은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14년 연간 14.5조 엔에서 2060년 연간 24.2조 엔으로 늘어나고<sup>19)</sup>, 노노(老老)간병,<sup>20)</sup> 치매간병 부담 확대 및 간병퇴직 문제,<sup>21)</sup> 치매 환자 간병 요양시설 대기 증가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일본 보험회사들은 치매인구 증가와 국민의 치매간병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치매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기 시작함
  - 일본에서 치매보험은 AFLAC이 1985년에 치매간병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나 치매에 대한 관심과 수요 부족으로 영업실적이 부진하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였음
  - 2016년에 타이요(太陽)생명이 처음으로 치매보장을 단독으로 보장하는 치매보험상품을 판매한 이후 2018년 다이이치생명, 단기소액보험회사, 도쿄(東京)해상, 2020년 2월부터 니혼(日本)생명과 메이지야스다(明治安田)생명, 스미토모(住友)생명 등의 보험회사들이 시장에 진입함

---

16) 日本生命保險協會(2021.2), “家族と備える認知症”  
 17) 전후 1947~1949년에 출생한 베이비부머 약 680만 명임  
 18) 학술적 정의는 없지만 NHK는 고령인구에서 차지하는 치매인구 비중이 2025년에 20%를 상회함에 따라 치매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개인·지역사회·국가가 역할을 분담하여 치매와 공존·공생하는 사회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NHK스페셜(2017. 4. 4), “認知症社会”)  
 19) 佐渡充洋(2015), “わが国における認知症の経済的影響に関する研究”, 厚生労働科学研究費補助金  
 20) 고령의 여성 배우자가 고령의 남편을 간병하거나(또는 반대의 경우) 고령의 자녀가 고령 부모를 간병하는 현상을 뜻함  
 21) 자녀의 부모 간병으로 연간 10만 명 이상이 직장에서 퇴직하는 사회적 현상을 뜻함

■ 2018년 이후 개발된 치매보험은 치매보장과 함께 치매 조기발견과 예방에 초점을 맞춘 상품으로 보장을 확장하고 있음

○ 상품의 주요 특징은 중·고령자가 가입하기 쉽도록 계약자 고지 사항 또는 위험인수기준 완화, 종전 상품에서 보장하던 경·중증치매는 물론 그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MCI)<sup>22)</sup>까지 확장, 치매 조기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으로 상품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장과 서비스가 차별화됨

○ 특히, 2020년 시장에 진입한 니혼생명, 메이지야스다생명, 스미토모생명 등 대형사들의 상품들은 치매 조기 검사 비용과 치매 예방약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경도인지장애 판정 시 치매진단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 반면 일본 최대의 손해보험회사인 도쿄해상은 치매환자 가족 비용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치매안심플랜’ 상품을 처음으로 개발하여 2018년에 판매함

○ 동 상품은 치매환자 행방불명(24시간 경과) 시 조사비용, 치매환자가 배회 중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방화 등의 피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한 개인배상책임 비용, 피해자 사망 시 위로금, 교통사고 상해 일시금을 보장하며, 월 납입보험료는 1,300엔임

〈표 7〉 일본 보험회사의 치매보험상품 개발 현황

구분	회사명	판매시기	특징
히마와리 인지증 치료보험	타이요생명	2016	- 치매상태가 180일 지속 시 일시금 지급 - 무해약환급형
안심간병인지증보험	아사히생명	2016	- 가입 2년 경과 후 치매진단 시 - 일시금 또는 연금 선택 가능
히마와리 인지증 예방보험	타이요생명	2018	- 위험인수 완화형 치매진단 보험금 - 매 2년마다 치매예방(생존)급부금 지급
인지증보험	SOMPO재팬 히마와리생명	2018	- 의사 진단에 따라 처음 경도인지증 장애·치매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금 지급
인지증보험	Plus 소액단기보험	2018	- 치매 상태 90일 지속 시 일시금 지급

22) 경도인지장애(MCI)란 인지기능이 감소하였으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치매 전 단계 상태로 그대로 방치할 경우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조기 치료를 받을 경우 정상인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질병임(厚生労働省e-ヘルスネット)

〈표 7〉 계속

구분	회사명	판매시기	특징
Just 인지증보험	다이어치생명	2018	- 치매보장 단독형, 치매 진단 시 일시금 지급
인지증안심플랜	토쿄해상	2018	- 행방불명 조사비용, 배상책임, 교통 상해보장
인지증간병일시금특약	AFLAC	2019	- 기존 및 신규 계약 시 특약으로 가입 - 치매상태 90일 지속 시 일시금 지급
인지증보험	니혼생명	2020	-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보장
인지증케어 MCI+	메이지야스다	2020	- 경도인지장애일시금, 치매일시금, 사망보험금
인지증 +	스미토모생명	2020	- 경도인지장애일시금, 치매일시금
종신 인지증연금보험	타이요생명	2020	- 일시납·저해약환급금형·저축성 상품으로 치매상태가 180일 지속 시 종신연금 지급

자료: 日本經濟新聞(2021. 2. 6), 認知症、保険加入も選択肢, 일본보험회사 각 홈페이지를 기초로 작성함

- 최근 일본 보험회사들은 IT·헬스케어 전문회사 등과 협업·제휴하여 치매보험에 부가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개발, 치매 예방과 치매고객 보호에 기여하고 있음
  - 메이지야스다생명은 혈액검사 등의 데이터로부터 인지기능 감소 리스크를 평가하는 서비스, 치매예방 앱, 대리청구 특약, 보험금 청구 고객 방문 서비스, 간병 시설·보조기구 소개, 치매 상담, 성년후견인·가족신탁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음
  - 니혼생명은 가족이 없거나 가족에게 재산관리를 위임하기 싫어하는 고객을 위하여 본인의 판단능력이 감소할 경우에 대비, 재산관리 등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임의후견인 소개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함
  - 다이어치생명은 치매예방 앱(QOlead사 제공), 뇌운동 프로그램(Besupura사 제공), 인지기능 테스트(Neurotrack사 제공), 긴급 비상 방문서비스(ALSOK사 제공), 치매 전문 전화상담(保健同人社 제공) 등을 제공함
  - 스미토모생명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 보험금액 감액 및 수익자 변경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자 대리제도 도입, 고객의 치매 상담 전문 콜센터, 건강증진 Vitality 프로그램(유료) 등을 제공함

〈표 8〉 일본 보험회사의 치매보험 부가서비스 제공 현황

구분	부가서비스 주요 내용
메이지야스다	인지기능 감소 평가, 치매예방 앱, 대리청구 특약, 보험금 청구 방문 서비스, 간병 시설·기구 소개, 치매 상담, 성년후견인·가족신탁 전문 상담
니혼생명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 앱 제공, 재산관리 임의 후견인 유상 소개
다이이치생명	치매예방 앱, 인지기능 테스트, 뇌운동 프로그램, ALSOK사의 긴급 비상 방문서비스, 인지증 전문 전화상담, 지정대리인 청구, 진단서 신청대행 등임
스미토모생명	건강체크, 건강상담 전문 콜센터, 가족지원(가족등록, 계약자 대리제도, 피보험자 대리) 서비스 제공, 건강증진 Vitality 프로그램 제공
SOMPO재팬 히마와리생명	치매 관련 정보제공, 인지기능 검사, 치매돌봄 서비스, 상담서비스
타이요생명	경도인지장애 검사, 건강 걷기 체험투어, 치매예방 앱, 치매 관련 시설 소개, 유료 양로원 소개

자료: 熊沢由弘(2019)를 기초로 수정·보완함

#### 4. 일본 마이넘버제도와 개인별 의료건강 정보 활용

- 일본 의료기관 창구에서 건강보험증 대신 마이넘버카드를 제시할 경우 공적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마이넘버제도가 2021년 3월부터 실용화됨
  - 마이넘버제도<sup>23)</sup>는 건강보험, 연금, 납세정보 등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일본판 주민등록제도로서 개인 식별을 위해 마이넘버카드에 본인 사진과 개인번호, IC칩이 내장되어 디지털 기술에 의해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됨
  - 마이넘버법 제정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일본 국민 개인별 마이넘버가 배부되었고, 우리나라 주민번호와 유사하게 마이넘버 조회(또는 IC칩 스캔)를 통해 사회보장·조세·금융 등의 디지털 정보 확인이 2021년 3월부터 가능해짐

23) 정식명칭은 사회보장·조세번호제도임

〈그림 1〉 일본 마이넘버카드 기본



■ 마이넘버법은 일본에서 마이데이터 개념 도입과 민·관 간 정보 공유,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민간기업 활용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2021년 10월부터 건강보험 피보험자 정보를 종전의 가구단위에서 개인단위로 분리하여 집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ID를 기준으로 마이데이터를 수집·집적·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짐
-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보수 청구를 위한 의료비 청구서(병명과 처방 포함)와 특정건강진단<sup>24)</sup> 정보를 본인 동의하에 다양한 의료기관과 공유하여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이 가능해짐
- 일본 정부는 개인의 건강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개인별 의료·건강 정보(PHR: Personal Health Record)를 본인의 동의하에 민간과 공유하여 기업의 효과적인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아울러 일본은 PHR 정보와 민간이 보유한 고객 정보 등의 개인 정보를 민간사업자가 가공·유통·활용할 수 있도록 일본판 데이터3법을 제·개정하였음

- 각 산업에서 입수한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2015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에 익명 가공정보 활용 규정을 신설함
- 통합적 민·관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기본법(2016)’, 보건 의료 익명가공 의료정보 활용과 사업자 허용을 위한 ‘차세대의료기반법(2017)’을 각각 제정함

24) 45세 이상 생활습관질환 조기 발견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 건강검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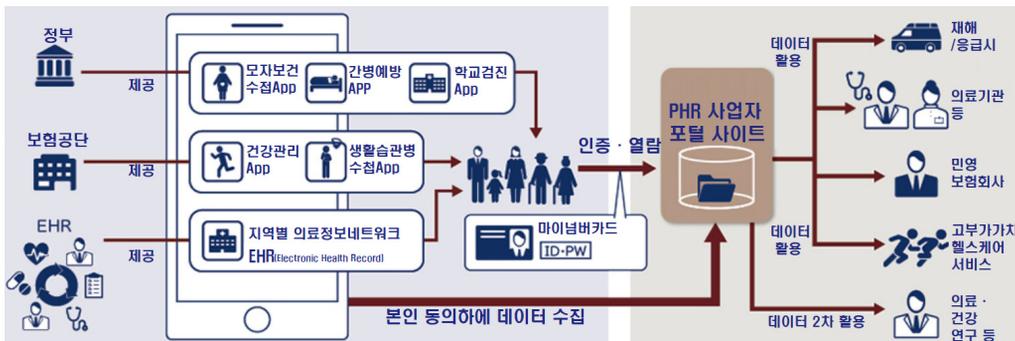
○ 2020년부터는 산재해 있는 건강·의료·간병 정보(이하, '헬스케어데이터'라 함) 통합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음

■ 이러한 관련법 제정에 따라 일본은 PHR 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PHR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각 분야에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sup>25)</sup>

○ 일본 정부의 PHR 활용 방안은 정부 및 지자체, 보험공단, 지역별 의료기관 정보네트워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PHR 정보를 본인의 동의하에 PHR 사업자가 익명으로 집계 및 유통하고, PHR 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익명 가공된 PHR을 의료기관, 민영보험회사, 헬스케어 사업자 등의 공공·산업에 활용하는 체계임<sup>26)</sup>

○ 일본 정부는 PHR 사업자를 ① 임신·출산·육아, ② 질병·간병 예방, ③ 생활습관성질환 예방, ④ 의료·간병제휴 목적으로 구분하여 전문화할 계획임

〈그림 2〉 일본 PHR(Personal Health Record) 활용 모델



자료: NEC(2018), 디지털헬스케어で実現する持続的な長寿社会

■ 현재 일본은 공공·산업별로 PHR 플랫폼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상품 및 서비스 가치 제고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경제산업성은 니혼(日本)생명의 PHR 플랫폼에 기반한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을 소개한 바 있음<sup>27)</sup>

25)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518773.pdf](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518773.pdf)

26) <https://wisdom.nec.com/ja/innovation/2018101001/index.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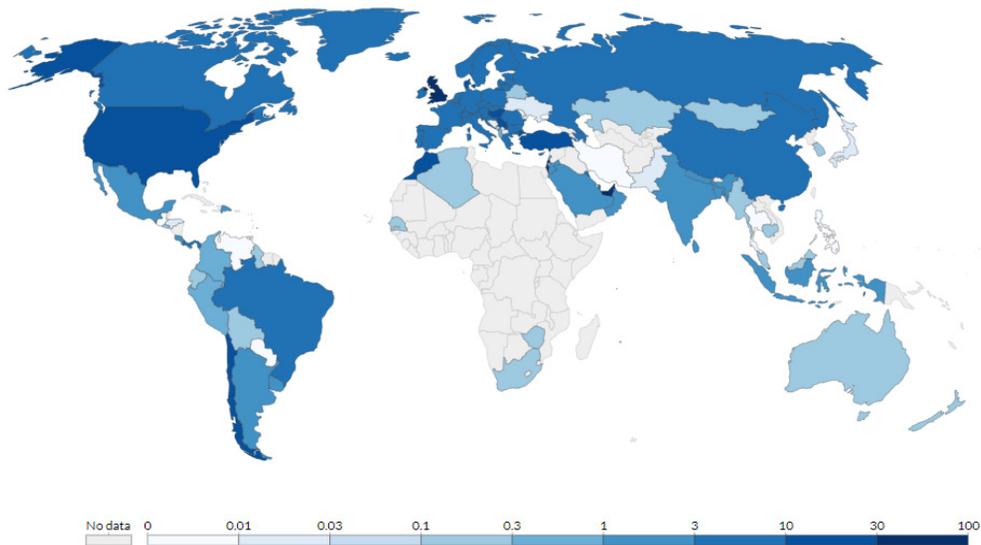
27) 経済産業省, 헬스케어IT研究会(2018. 4)

- 동 플랫폼은 의료·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체계로서, 2018년에 프레임 구축을 완료하여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니혼생명은 PHR 사업자의 헬스케어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을 건강한 사람과 질병 예상그룹, 경증과 중증환자별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와 재활, 간병 등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플랫폼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음

## 5. 코로나19 백신 관련 보험 이슈

■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약 1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배포되기 시작하였으며, 2021년 3월 3일 기준 1억 6,000만 개의 백신이 접종된 것으로 확인됨

〈그림 3〉 100명당 코로나19 백신 접종 수



자료: Our World in Data-4 March, 11:43(London Time)

■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의 배포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이 백신 공급망과 관련된 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물보험 분야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전 세계적으로 백신은 운송 위험도가 높은 품목으로 연간 백신 운송량의 30%가 손상되거나 도난당하는 것으로 추정됨<sup>28)</sup>
  - 제약 제품의 운송은 온도에 민감하고 특수 장비가 필요한 분야로 전문 제약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련된 운송업체에 의해 제공됨
  - 국제해상보험연맹(International Union of Marine Insurance)에 따르면 2019년 화물 손실에 대한 보험금 청구액이 5억 5,400만 달러 수준이었음
  
- 미국 화물업체 Hellmann Worldwide Logistics는 코로나19 백신의 운송 위험도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백신 운송을 위한 보호 장치와 추가적인 화물 보험의 필요성에 따라 운송 보험료 상승을 예상함<sup>29)</sup>
  - 제약회사 Pfizer의 백신은 -70°C(-94 °F)에서 보관해야 하며, Moderna의 백신은 30일간 2~8°C의 온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백신별로 상이한 조건에 따라 운송되어야 하며, 백신 운송에 복잡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영국 보험회사 Lloyd's와 화물 보험 전문 업체인 Parsyl는 높은 백신 운송 보험료 부담으로 백신 보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GHRF(Global Health Risk Facility)를 설립하여 운송 보험 서비스를 제공함<sup>30)</sup>
  - 14개의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로 구성된 GHRF는 온도에 민감한 백신의 운송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미국 국제 개발 금융 공사(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로부터 2,670만 달러를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 운송 보험 서비스를 제공함
  - GHRF는 온도에 민감한 백신 및 의약품, 진단 키트 등의 의료 용품의 보관 및 운송을 위한 보험을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의 백신 보급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8) Insurance Journal(2020. 12. 8), "COVID Vaccine Rollout Spurs Demand for Extra Insurance Coverage"

29) Lloyd's Loading List(2020. 9. 24), "COVID-19 Vaccine Delivery 'The Biggest Logistics Project Ever'"

30) Lloyd's(2020. 12. 15), "Lloyd's and Parsyl Launch Insurance Initiative for Distribution of COVID-19 Vaccines"

■ 운송 보험 외에도 보험회사는 코로나19 백신 배포에 따라 백신 부작용 관련 보험을 도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싱가포르에서 IP(Integrated Shield Plan)<sup>31)</sup>를 제공하는 7개 보험회사<sup>32)</sup>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등의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를 보장하여 국가적 예방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Aviva Singapore<sup>33)</sup>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Health Sciences Authority가 승인한 백신에 한하여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비용 없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음

○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의료비를 보장하는 말레이시아 보험회사 중 일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실시됨에 따라 보장범위를 백신 부작용까지 확대함<sup>34)</sup>

- 말레이시아 보험회사 Tokio Marine Life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가입자에게 최대 RM<sup>35)</sup>5,000을 보장하고 말레이시아 보험회사 Prudential은 입원할 경우 RM500을 보장함

31) IP는 싱가포르의 기본 건강보험인 MediShield Life 외에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민간 건강보험을 의미함

32) AIA, Aviva, AXA, Great Eastern, NTUC Income, Prudential, Raffles Health Insurance

33) <https://www.aviva.com.sg/>

34) The Star(2021. 3. 8), "Insurance Firms Expand Virus Coverage"

35) RM: Ringgit Malaysia, 말레이시아 통화 명칭임

---

# [특집] 중남미 보험시장 현황

---

---

## 1. 중남미 보험시장 개요

### 〈시장 규모〉

- 2019년 중남미 수입보험료는 1,571억 달러<sup>1)</sup>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 수준임<sup>2)</sup>
  - 중남미는 총 3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는 약 6.4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8.7%를 차지하며, 전 세계 GDP의 약 7.3%를 차지함
    - 중남미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구 수와 GDP 비중을 고려할 때 보험시장 규모는 작은 편임

### 〈성장률〉

- 달러 기준 최근 10년간(2010~2019년) 중남미 수입보험료는 연평균 2.0%로 성장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 연평균성장률 2.8% 대비 다소 낮은 수준임<sup>3)</sup>
  - 달러 기준 중남미 수입보험료는 2014년까지는 비교적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이후 회복하는 양상임
    - 이는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브라질 경제와 환율의 영향으로 해석됨<sup>4)</sup>

---

1) 중남미는 환율 변동성과 물가상승률이 높아 성장률 분석 시 두 지표를 모두 확인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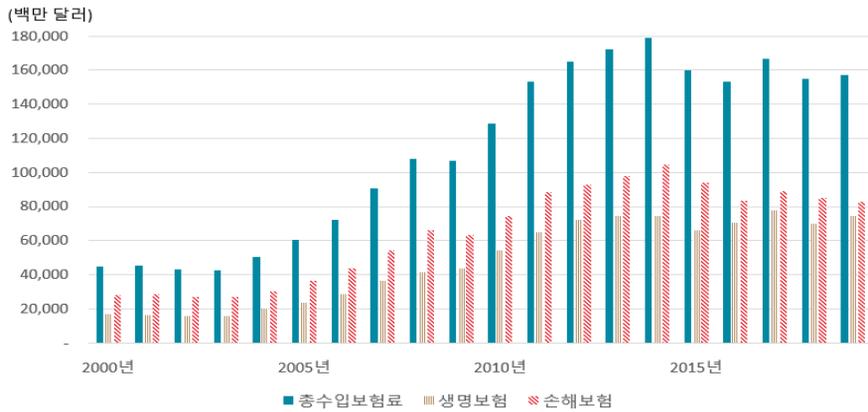
2) Sigma explorer. 중남미 국가는 총 33개국(멕시코, 중미 7개국, 남미 12개국, 카리브 13개국)이나 조사 대상 중남미 국가는 총 28개국으로 이들 국가는 각각 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버뮤다, 볼리비아, 브라질, 바하마스, 벨리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아이티, 자메이카, 케이만제도,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트리니다드토바고, 우루과이, 페네수엘라, 버진아일랜드임. 나머지 5개국은 카리브섬나라 혹은 남미의 수리남, 기아나 정도로 인구와 경제 규모가 작음

3) Sigma explorer

4) 브라질의 2015년, 2016년 GDP 성장률은 각각 -3.5%와 -3.3%이며 환율은 2014년 1달러당 2.3헤알 수준에서 2015년과 2016년 각각 3.3헤알과 3.5헤알로 평가절하됨

- 달러 기준 2000~2009년 중남미 수입보험료 연평균성장률은 9.1%로, 5.3%를 보인 전 세계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임

〈그림 1〉 중남미 생명·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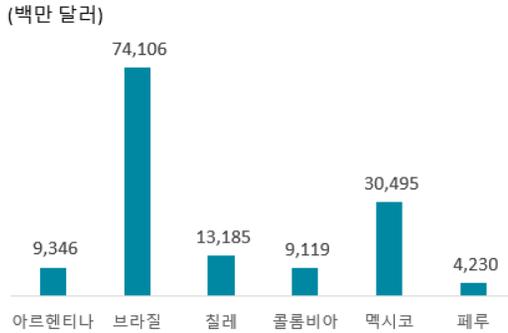


자료: Swiss Re Institute(Sigma explorer)

〈주요국〉

- 중남미 국가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브라질(47.2%)이며 그 뒤 멕시코(19.4%), 칠레(8.4%), 아르헨티나(5.9%), 콜롬비아(5.8%), 페루(2.7%) 순임
- 2019년 기준 수입보험료는 브라질 741억 달러, 멕시코 304억 달러, 칠레 131억 달러, 아르헨티나 93억 달러, 콜롬비아 91억 달러, 페루 42억 달러임
- 2018년 Swiss Re의 World Insurance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전 세계 16위 수준임

〈그림 2〉 중남미 국가별 수입보험료(2019년)



〈표 1〉 중남미 국가별 수입보험료 비중(2019년)

국가	비중(%)
브라질	47.2
멕시코	19.4
칠레	8.4
아르헨티나	5.9
콜롬비아	5.8
페루	2.7
기타	10.6

자료: Swiss Re Institute(Sigma explorer)

### 〈보험밀도·보험침투율〉

■ 2019년 중남미 평균 보험밀도는 244달러이고 보험침투율은 3.0%이며 칠레와 브라질의 보험밀도 및 보험침투율이 가장 높음<sup>6)</sup>

○ 중남미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 비교 시 모두 낮은 수준의 보험밀도와 보험침투율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성장가능성이 있음

- 우리나라는 보험밀도 3,366달러, 보험침투율 10.8%이고 전 세계의 경우 보험밀도 793달러, 보험침투율 7% 수준임

○ 2019년 보험밀도에서 칠레가 695달러로 가장 높고 그 뒤로 브라질 351달러, 멕시코 239달러, 아르헨티나 208달러, 콜롬비아 182달러, 페루 130달러 순임

○ 2019년 보험침투율에서 칠레가 4.7%로 가장 높고 그 뒤로 브라질 4.0%, 콜롬비아 2.8%, 멕시코 2.4%, 아르헨티나 2.1%, 페루 1.8% 순임

6) Sigma explorer

〈표 2〉 중남미 주요국 보험밀도, 보험침투율 및 주요 지표(2019년)

국가	보험밀도 (달러)	보험침투율 (%)	인구 수 (명)	1인당 실질 GDP (달러)
아르헨티나	208	2.1	44,938,712	10,086
브라질	351	4.0	211,049,527	8,708
칠레	695	4.7	18,952,038	14,811
콜롬비아	182	2.8	50,339,443	6,446
멕시코	239	2.4	127,575,529	9,864
페루	130	1.8	32,510,453	7,091
평균*	244	3.0	-	8,072

주: 중남미 평균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외 기타 중남미 국가 22개를 모두 포함한 수치임  
 자료: Swiss Re Institute(Sigma explorer) 및 세계은행 자료(인구 수)를 취합함

### 〈주요 기업〉

■ 중남미에서 활동 중인 주요 25개 보험회사 중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브라질 기업이 상위에 위치해 있으며 그 밖에 유럽과 미국계 다국적 기업이 높은 순위를 차지함

○ 중남미 보험시장에서 총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브라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남미 주요 10개 보험회사 중 브라질의 주요 4개 기업이 위치해 있음<sup>7)</sup>

○ 중남미는 이민 사회로 구성되어 있고 유럽과 미국에 친숙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계 기업은 중남미 시장에서 오랜 연혁을 두고 활동해옴

- 주요 외국계 기업으로 Mapfre, Zurich, CNP Assurance, Metlife, Innovacare, AXA, BBVA, Chubb, Allianz, MCS 등이 있음

- 아시아계 기업으로는 Tokio Marine이 유일하며 1959년부터 브라질에서 운영 중임

○ 중남미 주요 25개 기업 중 현지 보험회사는 9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6개가 외국계임

- 중남미 현지 기업은 브라질 4개사 외에 멕시코 3개,<sup>8)</sup> 콜롬비아 1개,<sup>9)</sup> 푸에르토리코 1개가 있음

7) 브라질의 상위 4개 보험회사는 각각 Bradesco, Brasiilpre, Itau, Porto Seguro임

8) Grupo Nacional Provincial, Banorte, Quálitas

9) Grupo Sura

〈표 3〉 중남미에서 활동 중인 주요 보험회사 점유율(2019년 수입보험료 기준)

순위	기업명	모기업 소재국	비중(%)	순위	기업명	모기업 소재국	비중(%)
1	Bradesco	브라질	6.60	14	BBVA	스페인	2.00
2	Brasilprev	브라질	6.50	15	Chubb	스위스	1.90
3	Mapfre	스페인	5.70	16	Allianz	독일	1.60
4	Zurich	스위스	5.70	17	MCS	미국	1.40
5	CNP Assurances	프랑스	4.70	18	Banamex	미국	1.40
6	Metlife	미국	3.10	19	Talanx	독일	1.40
7	Itaú	브라질	2.80	20	Banorte	멕시코	1.30
8	Grupo Sura	콜롬비아	2.80	21	Liberty Mutual	미국	1.30
9	Grupo Nacional Provincial	멕시코	2.60	22	Quálitas	멕시코	1.20
10	Porto Seguro	브라질	2.30	23	Cardif	프랑스	1.10
11	Triple-S	푸에르토리코	2.20	24	New York Life	미국	1.00
12	Innovacare	미국	2.20	25	Tokio Marine	일본	1.00
13	AXA	프랑스	2.00	-	-	-	-

주: 1) 상위 10개 기업 점유율 42.8%

2) 상위 25개 기업 점유율 65.5%

3) 허핀달 지수 247.2%(2019년)

자료: MAPFRE Economics(2020), "2019 Ranking of Insurance Groups in Latin America"

## 2. 중남미 주요국 보험시장 현황

### 가. 브라질

#### 〈시장규모/성장률〉

- 브라질 보험시장은 한국의 약 42.5% 규모이고<sup>10)</sup> 최근 5년간(2013~2018년) 연평균성장률이 달러기준 -4.7%로 마이너스 성장함<sup>11)</sup>
  - 2019년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 약 413억 달러, 손해보험 약 328억 달러임
  - 헤알화 기준 최근 5년간(2013~2018년) 연평균성장률은 6.4%로 물가상승률(6.2%)을 감안하면 성장률은 미미한 수준임<sup>12)</sup>

#### 〈의료시스템〉

- 기본적으로 전 국민이 국민의료서비스인 SUS<sup>13)</sup>에 가입되어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국민의 약 80%가 개인보험 없이 공공보험에 의존하고 있음<sup>14)</sup>
  - 브라질은 1988년 헌법에 의해 모든 국민이 SUS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 모두가 SUS가 운영하는 국립 및 시립 병원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그러나 고급 의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며 1988년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었고 현재 인구의 약 20%에 속하는 상류층이 가입되어 있음<sup>15)</sup>

#### 〈상품〉

- 생명보험에서 VGBL<sup>16)</sup> 상품이 대다수(89%)를 차지하고 손해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 중 인명 피해만을 보상하는 DPVAT<sup>17)</sup>가 의무보험임

10) Sigma explorer

11) OECD insurance statistics database 활용 후 저자 작성함

12) OECD insurance statistics database 및 OECD data(물가상승률 자료) 활용 후 저자 작성함

13) SUS: Sistema Único de Saúde

14)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5), 「브라질 보건의료체계」

15) 개인이 직접 가입하거나 직장에서 근로자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민영 의료보험을 지원해 줌(개인가입자 22%, 단체가입자 78%)

16) Vida Gerador de Benefícios Livres

17) DPVAT(Danos Pessoais Causados por Veículos Automotores de Via Terrestre)는 교통사고 가해자

- VGBL이란 2001년 도입되어 변액보험의 투자 기능과 연금의 특성을 결합하여 만든 생명보험상품으로 정부의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고 있음<sup>18)</sup>
- DPVAT는 인명에 대한 위험만을 보상하는 의무보험(차량 담보 X)으로 2020년 자동차 소유주는 보험료로 5.23헤알(1,090원), 오토바이 소유주는 12.30헤알(2,560원)을 납부했는데 금액은 매년 변동함<sup>19)</sup>

### 〈주요 기업〉

- 2019년 수입보험료 기준 브라질 주요 보험회사는 Bradesco이고 그 뒤로 Brasilpre, Caixa Seguros, Sulamerica 순임
- 브라질 보험회사는 브라질 은행과 연계하여 그룹 차원에서 방카슈랑스 판매채널을 통해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에 유리한 구조임
- 수입보험료 기준 주요 5개 생명보험회사가 생명보험 부문의 93.3%를, 주요 5개 손해보험회사가 손해보험부문에서 58.0%의 비중을 차지함

### 〈특징〉

- 브라질은 중남미 보험시장에서 약 절반가량의 비중을 차지하는 큰 시장이나 생명보험 가입자는 브라질 총 인구의 약 15% 수준이고, 자동차보험의 경우 고가의 보험료로 차량의 30%만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sup>20)</sup>
-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의 보험시장으로 우리나라 코리안리가 2017년 브라질 재보험사인 IRB와 MOU를 체결한 바 있음
- Prudential do Brasil이 의뢰한 설문조사<sup>21)</sup>에 따르면 생명보험 가입자는 브라질 인구

와 관계없이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1974년 시행된 제도로 인명 피해만을 보상함(재산상의 피해 보상 X). 사망 시 최대 13,500헤알(277만 원), 영구장애 시 최대 13,500헤알(277만 원), 의료비용은 최대 2,700헤알(55만 원)까지 보상함

- 18) 브라질 정부는 저축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연금 상품을 유지하도록 장려하는 조세제도 등을 도입함
- 19) 2021년의 경우 DPVAT 보험료는 0임. 이는 현재 DPVAT의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결정에 따른 내용으로 DPVAT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2020년의 경우 전년 대비 자동차와 오토바이 소유주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각각 68%, 86% 인하된 바 있음
- 20) <https://www.revistaapolice.com.br/2019/09/pesquisa-aponta-que- apenas-15-dos-brasileiros-t-em-seguro-de-vida/>
- 21) <https://www.revistaapolice.com.br/2019/09/pesquisa-aponta-que- apenas-15-dos-brasileiros-t-em-seguro-de-vida/>

의 약 15% 정도로 낮은 수준인데, 브라질의 높은 자영업자의 비율(32.6%)<sup>22)</sup>을 감안할 경우 이들에 대한 소득 보완 장치가 필요함

- 의무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 가입률은 낮은 수준으로 브라질에 등록된 약 1억 2,000만 대의 차량 중 70%가 보험 없이 운행되고 있음<sup>23)</sup>
  - 소액으로 월별 구매하며 위험을 보장하는 디지털 손해보험상품이 활발히 출시되고 있음<sup>24)</sup>

## 나. 멕시코

### 〈시장규모/성장률〉

- 멕시코 보험시장은 한국의 약 17.5% 규모로 최근 5년간(2013~2018년) 연평균성장률이 달러 기준 0.8%로 저조한 수준임<sup>25)</sup>
  - 2019년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 약 142억 달러, 손해보험 약 163억 달러임<sup>26)</sup>
  - 멕시코 폐소 기준 최근 5년간(2013~2018년) 연평균성장률은 10.6%로 높은 수준이나 물가상승률(4.1%)을 감안할 경우 6.5% 정도임<sup>27)</sup>

### 〈의료시스템〉

- 공적영역과 민간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인구의 약 80%가 공적영역에 의존하고 있고 민간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전체 인구의 8% 정도임
  - 공적영역은 공공 부문에 취업한 계층을 위한 고용 기반 사회보험제도와 이들 제도에서 소외된 일반 국민을 위한 국민건강보험(Seguro Popular)<sup>28)</sup>으로 구분됨

22) OECD data. 한국의 경우 자영업자 비율이 24.6% 수준임

23) <https://noticias.r7.com/tecnologia-e-ciencia/programa-inova-360/12-milhoes-de-brasileiros-nao-tem-seguros-para-seus-automoveis-27112020>

24) 디지털 전문 보험사인 Pier사는 차량 도난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최저 약 27헤알(약 5,500원)부터 판매하고 있음

25) OECD insurance statistics database 활용 후 저자 작성함

26) Sigma explorer

27) OECD insurance statistics database 및 OECD data(물가상승률 자료) 활용 후 저자 작성함

28) 1983년 멕시코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건강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Seguro Popular)은 2020년 1월부터 INSABI(Instituto de Salud para el Bienestar)로 대체되나 국민건강보험(Seguro Popular)이 좀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임. 국민건강보험이 소액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는 형식이라면 INSABI는 무료라는 특징이 있음

- 사적영역에선 보험료 지불 능력이 있는 전체 인구의 약 8% 정도만이 민간보험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함<sup>29)</sup>

### 〈상품〉

- 생명보험에서 연금상품보다 생명보험상품의 보험료 비중이 높고(생명보험부문 전체의 약 89% 차지) 손해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 중 제3자배상책임보험이 의무보험임
- 생명보험 2019년 수입보험료 기준 개인보험이 대다수의 비중(73.9%)을 차지하고 그 다음 단체(24.5%), 조합(1.5%) 순임<sup>30)</sup>
- 자동차보험에서 제3자배상책임보험이 의무<sup>31)</sup>이나 약 70%에 가까운 차량이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혹은 가입 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임<sup>32)</sup>

### 〈주요 기업〉

- 2020년 9월 수입보험료 기준<sup>33)</sup> 멕시코 주요 보험회사는 Grupo Nacional Provincial이고 그 뒤로 Metlife México, Seguros BBVA Bancomer, AXA Seguros 순임
- 수입보험료 기준 주요 5개 생명보험회사가 생명보험 부문의 65.3%를, 주요 5개 손해보험회사가 손해보험부문에서 44.3%의 비중을 차지함

### 〈특징〉

- 멕시코는 브라질에 이은 중남미 제2의 보험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보험침투율은 낮은 수준이고, 제3자배상책임보험 없이 운행되는 차량 비율이 주요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음<sup>34)</sup>
- 멕시코의 낮은 보험침투율(2.4%)은 전체 근로자의 53%에 달하는 비공식(informal)<sup>35)</sup>

29) <https://www.forbes.com.mx/solo-1-de-cada-10-mexicanos-tiene-seguro-de-gastos-medicos/>

30) <http://sio.cnsf.gob.mx/>

31)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임. 보험금은 대물배상은 최소 50,000페소(약 275만 원), 대인배상은 최소 100,000페소(약 550만 원)임. 제3자배상책임은 자기차량에 발생한 손해 및 운전자와 탑승자에 대한 부상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장받고자 한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함

32) <https://www.infobae.com/america/mexico/2020/01/18/70-de-autos-en-mexico-no-tienen-seguro-aunque-es-obligatorio>

33) <https://www.cnsf.gob.mx/Difusion/Paginas/RevistaActualidadSegurosFianzas.aspx>, “Participación Mercado Consolidado”

34) <https://www.inese.es/mexico-es-uno-de-los-paises-de-latinoamerica-con-mas-autos-sin-seguro/>

- 부문 근로자와<sup>36)</sup> 낮은 임금 소득<sup>37)</sup> 때문으로 분석됨
- 멕시코에서 자동차 제3자배상책임보험은 2019년부터 의무화되었으나 보험 없이 운행되는 차량 비율(69%)은 멕시코가 중남미에서 가장 높으며, 그 뒤로 콜롬비아(39%), 브라질(33%), 아르헨티나(22%), 칠레(8%) 순임
  - 멕시코 인구 10만 명당 피보험자 수는 멕시코 수도인 DF(Districto Federal)<sup>38)</sup>가 압도적으로 높고 그 뒤 북부 지역<sup>39)</sup>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인구 10만 명당 사고 밀도와도 유사한 추세를 보임<sup>40)</sup>
  - 높은 소득 불평등과 낮은 사회보장제도로 개인 보호와 관련된 민영보험이 진출할 여지가 많으나, 일반 대중의 낮은 소득 수준은 한계로 지적됨

## 다. 칠레

### 〈시장규모/성장률〉

- 칠레 보험시장은 한국의 약 7.6% 규모이고 최근 5년간(2013~2018년) 연평균성장률은 달러기준 7.3%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준임<sup>41)</sup>
- 2019년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 약 78억 달러, 손해보험 약 53억 달러임<sup>42)</sup>
- 칠레 폐소 기준 최근 5년간(2013~2018년) 연평균성장률은 9.3%에 달하고 물가상승률(3.5%)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준임<sup>43)</sup>

35) 비정규직과 다른 것으로 공식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부문을 의미함

36) <https://expansion.mx/economia/2020/08/05/2-8-millones-de-mexicanos-carecian-de-empleo-en-junio>

37) 2021년 멕시코 최저임금은 하루 기준 141.7페소(약 7달러)임

38) 멕시코의 정식 수도 명칭은 DF로 2016년 기존의 수도명인 멕시코시티의 행정명이 DF로 변경됨

39) 시날로아, 누에보레온, 두랑고, 코아올리아 주

40) 인구 10만 명당 피보험자 수: DF(773,483명), 시날로아 주(205,435명), 누에보레온 주(189,128명), 두랑고 주(177,625명), 코아올리아 주(140,294명). 인구 10만 명당 사고 건수: 누에보레온 주(19,526건), DF(9,488건). 사고 밀도는 대체적으로 남부지방보다 북부지방에 높게 집중되어 있음

41) OECD insurance statistics database 활용 후 저자 작성함

42) Sigma explorer

43) OECD insurance statistics database 및 OECD data(물가상승률 자료) 활용 후 저자 작성함

### 〈의료시스템〉

■ 칠레 건강보험은 공적영역과 민간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국민의 78%가 공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민영건강보험 가입자는 인구의 14% 정도임

- 칠레 사회개발부가 발표한 보고서<sup>44)</sup>에 따르면 2017년 칠레 인구의 78%가 국민건강보험(FONASA<sup>45)</sup>), 14%가 민영건강보험(ISAPRES<sup>46)</sup>)에 가입되어 있고 기타(2.8%), 무보험(2.8%), 알지 못함(2.0%)으로 응답한 비율은 소수임<sup>47)</sup>
- 칠레는 국민이 공적보험과 민영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단일보험자 제도와는 차이가 있음

### 〈상품〉

■ 생명보험에서는 전통적 생명보험상품 및 종신연금 상품의 비중이 높고, 손해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 중 인명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개인상해의무보험(SOAP<sup>48)</sup>)이 의무임

- 생명보험에서 2019년 수입보험료 기준 전통 생명보험이 40%, 종신연금<sup>49)</sup>이 47%로 대다수를 차지함
- 개인상해의무보험(SOAP)은 차량의 소유주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인명에 대한 위험만을 보상하며(차량 담보 없음) 전체 손해보험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임

44) 칠레 사회개발부(2018. 9), "Salud. Sintesis de Resultados"

45) FONASA: Fondo Nacional de Salud. 1979년 도입되었으며 극빈층이나 중산층의 의료 수요를 담당함. 극빈층을 제외한 가입자는 소득의 7%를 강제납입금으로 지출하고 자유선택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추가적으로 본인부담금 10~20%를 납부해야 함

46) ISAPRES: Instituciones de Salud Previsional; 1981년 도입되었고 소득이 높은 중산층 및 고소득자가 이용함. 높은 보험료로 인해 주로 고소득층이 가입하거나 고소득자가 강제로 가입됨. 7% 강제 징수되는 보험료 외에 개인이 위험요인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에 따라 본인부담금 또한 상이하게 부과됨

47) 칠레 사회개발부(2018. 9) "Salud. Sintesis de Resultados", p. 4

48) 개인상해의무보험(SOAP: Seguro Obligatorio de Accidentes Personales). 칠레 주요 손해보험회사인 BCI 보험의 경우 개인상해의무보험 보험료는 자전거 소유주 37,900칠레페소(약 5만 7,000원), 트럭 소유주 7,590칠레페소(약 1만 1,400원), 차량 소유주 5,190칠레페소(약 7,800원) 수준으로 저렴함. 보험금은 사망 시 인당 300UF(약 1,320만 원), 영구 전신 장애 시 인당 300UF(약 1,320만 원), 영구 부분 장애 시 최대 인당 200UF(880만 원)를 지급함(<http://www.svs.cl/educa/600/w3-propertyvalue-565.html>)

49) Renta Vitalicia. 계약 체결 즉시 혹은 정해진 기간 이후부터 보험가입자 사망 시까지 매월 고정된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저축상품임

### 〈주요 기업〉

- 2019년 수입보험료 기준<sup>50)</sup> 칠레 주요 보험회사는 Metlife이고 그 뒤로 Chilena Consolidada, Penta, Consorcio Nacional, BCI 순임
- 수입보험료 기준 주요 5개 생명보험회사가 생명보험의 56.5%를, 주요 5개 손해보험회사가 손해보험에서 55.2%의 비중을 차지함

### 〈특징〉

- 칠레는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1인당 GDP, 보험밀도 및 보험침투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손해보험 대비 생명보험의 비중이 높음
- 2019년 칠레 1인당 GDP는 약 15,000달러, 보험밀도는 695달러, 보험침투율은 4.7%임
- 칠레는 1981년 연금 개혁을 통해 세계 최초로 연금 민영화를 실시한 역사적 경험<sup>51)</sup>으로 개인계정방식에 의한 연금시장이 발달한 구조를 지녔고, 따라서 생명보험 비중이 손해보험 대비 큼
- 연금 시스템과 관련하여 향상될 여지가 많아 생명보험과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음<sup>52)</sup>

50) CMF(2019. 12), "Informe Financiero del Mercado Asegurador", p. 5와 p. 13 참조 바람

51) 칠레는 1981년 전면적인 연금개혁을 통해 부과방식의 확정급여형 공적연금제도를 개인퇴직계정방식의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전환하고 적립된 연금기금을 민간 연금관리 회사가 경쟁적으로 운용토록 함

52) Allianz(2020. 7), "Allianz Insurance Report 2020 Skyfall"

---

# [특집] 해외 판매채널: 미국

---

## 1. 판매채널 종류

〈생명보험〉<sup>1)</sup>

- 미국 생명보험 판매채널은 전속채널(Affiliated Agents), 독립채널(Independent Agents), 직접 판매(Direct Response)와 기타 채널로 구분됨
- 전속채널은 단일 보험회사와 계약하여 해당 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을 의미하며 일반대리점(Agency building), 교차판매전속대리점(MLEA), 홈서비스(Home service Agents) 등이 포함됨
  - 일반대리점과 홈서비스는 생명, 건강, 연금, 단체 보험을 주로 판매하며 경우에 따라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하기도 함
  - 교차판매전속대리점은 생명, 건강, 연금보험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주로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함
- 독립채널은 단일 보험회사와 독점계약 없이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을 의미하며 독립대리점, 보험중개인(Insurance broker), 개인독립총대리점(PPGA), Broker-dealer, 투자자문업자(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등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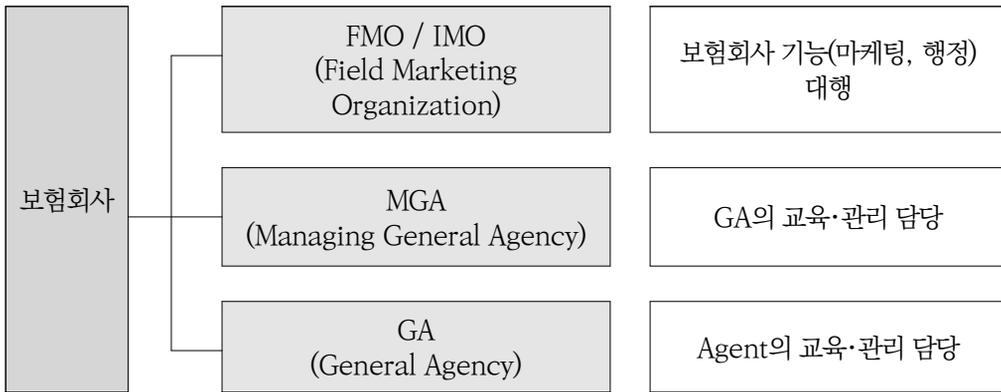
---

1) LIMRA(2020),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Industry Estimates"를 참고함

- 보험중개인은 단일 보험회사를 대표할 의무가 없는 독립 사업자로 별도의 Overriding Commission을 받지 않으며, 보험중개인의 중개 활동에 대한 보험회사의 제약이 거의 없음
- 개인독립총대리점은 독자적인 판매와 대리점 산하의 보험 설계사, Broker의 판매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함
- Broker-dealer는 자신 또는 고객의 증권을 사고파는 중개인 또는 중개인이 소속된 회사로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 및 상품을 판매함

참고: 미국 보험회사와 독립대리점 운영방식<sup>2)</sup>

〈참고〉 보험회사와 독립대리점 간 계약체결 방식



- 보험회사와 독립대리점 간 판매계약 방식은 FMO(Field Marketing Organization)/IMO(Insurance Marketing Organization)계약, MGA(Managing General Agency) 계약, GA(General Agency)계약이 있음
  - 미국의 독립대리점은 피라미드식 조직형태로, MGA가 GA를, GA가 Agents를 거느리는 구조임
- FMO/IMO는 보험 판매를 허가받은 최상위 조직으로 보험회사의 기능(마케팅, 행정)을 대행함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주로 해외보험사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경우, 신규 진입기업이 보험회사로서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FMO를 이용하여 마케팅 업무를 일임함

- MGA는 업무대행대리점으로 보험회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하며, 언더라이팅, 보험료 수취, 계약가체결권, 보험금 사정 및 지급 등의 수탁업무를 수행함
- 미국은 역사적으로 GA와 보험회사 간 매끄럽지 못한 관계로 GA들이 보험회사와의 협상력(Negotiation Leverage)을 구축할 목적으로 연합을 통해 대표기관인 MGA를 형성한 바 있음
- GA는 총대리점으로 보험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보험상품 판매자들인 Agent를 관리하고 보험을 판매함

- 직접 판매는 보험회사가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보험소비자에게 직접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메일, 미디어 광고, 텔레마케팅을 통한 판매와 보험소비자가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포함함

- 위의 채널 이외에 금융기관, Worksite와 같은 기타 채널이 있음

- 은행창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Bancassurance)와 같이 금융기관을 통한 가입 채널이 있음
- Worksite는 직장에서 종업원의 급여에서 징수되거나 고용주가 보험료를 지불하는 보험을 위한 채널임

#### 〈손해보험〉

- A.M. Best에 따르면 미국 손해보험 판매채널은 보험 대리점(Agency Writer)과 직판 채널(Direct Writer)로 구분됨<sup>3)</sup>
- 보험 대리점은 독립 대리점(Independent Agencies), Broker, GA(General Agents), MGA(Managing General Agents) 등을 의미함
- 직판 채널은 전속설계사(Exclusive Agents)를 통한 보험회사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자회사, 관계회사를 활용한 판매와 인터넷, 우편, 전화를 통한 판매를 모두 포함함

2) 김동겸(2019), "U.S. Independent Agency", Working Paper를 참고함

3) III(2019), "Facts + Statistics: Distribution channels"를 참고함

〈표 1〉 미국 생명보험 판매채널

구분	채널분류	종류
생명보험	전속채널	일반대리점
		교차판매전속대리점
		홈서비스
	독립채널	보험중개인
		개인독립총대리점
		Broker-dealer
		투자자문업자
	직접판매	웹사이트, 메일, 텔레마케팅
	기타채널	금융기관
		Worksite
손해보험	보험대리점	독립대리점
		Broker
		GA, MGA
	직판채널	전속 설계사
		자회사 및 관계회사
		인터넷, 우편, 전화

자료: LIMRA(2020),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Industry Estimates", III(2019), "Facts + Statistics: Distribution channels"

## 2. 판매채널 변화

〈생명보험〉<sup>4)</sup>

■ 미국 생명보험시장은 각 시기의 경제환경과 목표시장에 따라 주력상품 및 주력 판매채널도 변화하였음

- 경제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자 니즈가 변화하게 되며, 이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이 도입되고, 도입된 보험상품의 특성에 따라 판매채널 전략도 변화하게 됨

4) 변혜원(2013), 「미국 생명보험 판매채널 변화와 시사점」, 『테마진단』, 제62호를 참고함

〈표 2〉 미국 생명보험시장 판매채널 변화

구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경제	저성장, 높은 인플레이션	성장 재개, 주식시장 활황	세계화 확대 (이상과열)	저성장
목표시장	젊은 가계	젊은 전문가	부유한 가계	고소득자 및 은퇴자
상품특성	종신보험	투자형 상품 (UL, VL)	투자형 상품	보증옵션 상품
판매채널	전속채널	전속채널, 독립채널, 직판(우편, 전화)	다중채널	기존 보험채널 및 투자채널

자료: Lombardi(2009); 변혜원(2013), 『미국 생명보험 판매채널의 변화와 시사점』 재인용함

- 1970년대에는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공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한 종신보험과 같은 전통적인 보장상품이 전속채널을 통해 판매됨
  - 전통적인 보장성 보험상품들은 주로 단일 회사를 대리하는 일반대리점, 홈서비스와 같은 전속채널을 통해 판매됨
- 1980년대에는 유니버설보험(Universal Insurance), 변액보험(Variable Insurance) 등 투자형 상품들이 독립채널을 통해 판매됨
  - 소비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유니버설보험과 주식시장의 성장 및 뮤추얼 펀드(Mutual Fund) 대중화로 인해 변액보험이 성장함
  - 투자형 상품은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여러 회사 상품을 비교 및 제시할 수 있는 독립채널 판매 비중이 증가함
- 1990년대에는 보험상품 수요의 다양화 및 보험상품의 복잡화로 인해 독립채널 비중이 높아졌으며, 니즈 상품 성격에 따라 전속채널, 독립채널, 직접판매와 방카슈랑스 등을 활용한 다중 채널 전략이 사용되었음
  -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 준비 상품 수요 증대로 연금상품이 활성화되면서 변액연금 판매가 증가하였고, 금리역마진 감소를 위한 금리연동형 유니버설보험, 실적배당형 변액종신보험 등의 다양한 상품 판매가 증가함

○ 보험상품의 복잡화로 인해 여러 보험회사들의 상품들을 비교하여 제시할 수 있는 독립채널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독립채널의 판매 비중이 전속채널의 비중을 추월함

■ 2000년대에는 고소득 은퇴자들을 위한 보증옵션을 포함한 연금상품 판매가 증가하였으며, 이들에게 재무설계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필요성에 따라 투자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있는 복합채널이 증가함

○ 보증옵션과 더불어 투자형 상품설계를 제공할 수 있는 증권브로커, 금융자문가 등 전문 지식을 갖춘 복합채널(독립채널과 전속채널을 함께 활용한 채널)이 증가함

#### 〈손해보험〉<sup>5)</sup>

■ 과거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들은 지역 보험 대리점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였으며, 신속한 견적 제시, 빠른 클레임 처리 등을 바탕으로 경쟁하였음

○ 2000년대만 하더라도 개인 자동차보험의 80%, 주택보험과 소규모 상업보험의 거의 100%가 보험 대리점을 통해 판매됨

■ 최근 개인 보험, 소규모 상업보험의 보험 대리점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와 소비자가 직판 채널을 통해 의사소통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확대됨

○ 특히 자동차보험에서 직판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정보수집, 견적 확인, 보험가입 과정에서 여러 채널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임(〈그림 1〉 참고)

■ 손해보험회사들은 보험 소비자의 채널 간 이동이 확대됨에 따라 고객 데이터를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는 등 판매 채널 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5) McKinsey&Company(2013), "Agents of the Future: The Evolution of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Distribution"을 참고함

〈그림 1〉 미국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의 보험 가입 경로



주: Top 5 multichannel shopping journey, 조사대상자의 72%에 해당됨  
 자료: 2021 McKinsey Auto Insurance Customer Insight Research

### 3. 판매채널 현황

####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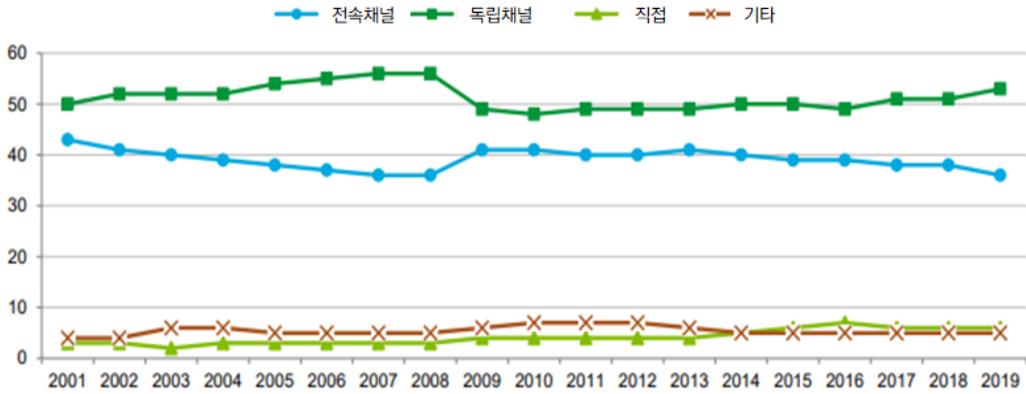
■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생명보험 분야의 판매채널은 독립채널이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독립채널(53%), 전속채널(36%), 직접 판매(6%), 기타채널(5%) 순의 점유율을 나타냄<sup>6)</sup>

- 2019년 독립채널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생명보험상품 중 인덱스유니버설보험(IUL)의 약 90%, 변액유니버설보험(VUL)의 약 70%를 판매하며 시장점유율을 확대함
- 온라인 판매 등 보험회사의 직접판매는 2009년 4%의 시장점유율에서 2019년 6%로 상승함

6) LIMRA(2020),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Industry Estimates(1975-2019)"

〈그림 2〉 미국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시장점유율 비교

(단위: %)



주: 연납화보험료 기준  
 자료: LIMRA's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Yearbook

■ 2020년 3/4분기 미국 생명보험 판매채널의 신계약 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상품별로 다르게 나타남

- 전속채널에서는 종신보험이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정기보험, 유니버설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순임
- 독립채널에서는 유니버설보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변액유니버설보험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함
- 직접판매에서는 종신보험이 74%를 차지한 반면, 변액유니버설보험이 0%를 차지하며 가장 낮은 점유율을 보였음
- 기타채널에서는 정기보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변액유니버설보험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함

〈표 3〉 2020년 3/4분기 미국 생명보험상품별 판매채널 신계약 보험료 시장점유율

(단위: %)

구분	연납화 보험료				
	유니버설	변액유니버설	정기	종신	합계
전속	15	7	22	56	100
독립	57	10	20	13	100
직접	1	0	25	74	100
기타	6	2	63	29	100

자료: LIMRA(2020. 11), U.S. Retail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 2020년 3/4분기 미국 생명보험 판매채널의 신계약 건수 기준 시장점유율도 상품별로 다르게 나타남

- 전속채널에서는 정기보험이 50%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종신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유니버설보험 순임
- 독립채널에서는 정기보험이 49%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유니버설보험과 종신보험이 각각 25%, 24%를 차지하였고 변액유니버설보험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함
- 직접판매에서는 종신보험이 79%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정기보험이 21%를 차지하였으나, 유니버설보험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신계약 건수는 미미함
- 기타채널에서는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이 각각 57%, 42%를 차지한 반면, 유니버설보험은 1%를 차지함

〈표 4〉 2020년 3/4분기 미국 생명보험상품별 판매채널 신계약 건수 시장점유율

(단위: %)

구분	신계약 건수				
	유니버설	변액유니버설	정기	종신	합계
전속	9	2	50	39	100
독립	25	2	49	24	100
직접	0	0	21	79	100
기타	1	0	57	42	100

자료: LIMRA(2020. 11), U.S. Retail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 2019년 개인연금보험의 판매에서는 독립 Broker-dealer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2019년 독립 broker-dealer의 판매 비중은 2015년 대비 1%p 상승한 24%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독립설계사가 20%를 차지함
  - 2019년 은행의 판매비중은 2015년 대비 1%p 상승한 18%를 기록하였지만, 직접판매는 1%p 하락한 6%를 나타냄
  - 2019년 Full-service Nation Broker-dealer<sup>7)</sup>는 2015년 대비 1%p 상승한 14%를 기록함

〈표 5〉 미국 연금보험 판매채널별 판매 비중 비교

(단위: %)

구분	2015	2019
독립 브로커딜러(Broker-dealer)	23	24
독립설계사	17	20
Career 설계사	20	17
은행	17	18
Full-service Nation Broker-dealer	13	14
직접판매	7	6
기타	2	3

자료: LIMRA(2020), "U.S. Individual Annuities, 2019 Year in Review";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2020), "Facts + Statistics: Distribution channels"를 재인용함

〈손해보험〉<sup>8)</sup>

- A.M. Best에 따르면 2018년 미국 손해보험 채널별 순보험료는 직판 채널이 전체의 51.4%, 보험 대리점이 전체의 47.7%를 차지함
  - 개인 보험에서 직판 채널이 69.5%, 보험 대리점이 29.8%를 차지하였으며, 주택 보험에서는 직판 채널이 66.5%, 보험 대리점이 31.6%를 차지하며 전체 평균보다 높은 직접 판매 비율을 보임
  - 반면 상업용 손해보험 분야에서는 보험 대리점이 70.8%, 직판 채널이 27.9%를 차지함

7) 자신 또는 고객의 증권을 사고파는 broker-dealer가 광범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갖춘 경우 Full-service Broker-dealer라고 함

8) III(2019), "Facts + Statistics: Distribution channels"를 참고함

■ IIABA(Independent Insurance Agents and Brokers of America)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미국 내 독립 대리점은 약 36,500개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2016년 38,000개에서 다소 감소한 수치임

- 이러한 감소 추세는 주로 M&A 증가에 따른 것으로 2018년 조사에 참여한 대리점의 12%가 인수에 참여하였으며 1%는 다른 대리점과 합병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기준 소규모 보험 대리점(수익 15만 달러 미만)이 전체 보험 대리점의 35%를 차지하고, 대형 보험 대리점(수익 1,000만 달러 이상)이 전체 대리점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종사자 수〉<sup>9)</sup>

■ 2019년 미국의 보험종사자들은 279만 명으로,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2019년 생명 및 건강보험종사자들은 2010년 대비 약 12만 명 증가한 92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손해보험과 재보험 종사자들은 각각 65만 명, 3만 명을 기록함
- 보험대리점 및 중개인과 같은 독립채널 종사자는 84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그 외 보험 관련 업무 종사자는 35만 명을 기록함
- 2019년 보험회사의 직접 판매는 160만 명을 기록하였고 보험대리점 외 판매채널은 119만 명을 기록함

〈표 6〉 2010년부터 2019년 미국 시장별 연평균 보험종사자 수 추이

(단위: 만 명)

연도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중개인, 그 외			합계
	보험회사의 직접판매			합계	보험대리점 및 중개인	그 외 보험 관련 업무 <sup>1)</sup>	합계	
	생명 및 건강	손해	재보험					
2010	80.4	61.4	2.7	144.5	64.2	25.3	89.6	234.1
2011	78.9	61.2	2.6	142.6	64.9	26.1	91.0	233.6
2012	81.1	60.0	2.5	143.7	66.0	27.2	93.2	236.8
2013	81.3	59.4	2.6	143.3	67.2	28.4	95.6	238.9

9) III(2019), "Facts + Statistics: Distribution channels"를 참고함

〈표 6〉 계속

(단위: 만 명)

연도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중개인, 그 외			합계
	보험회사의 직접판매			합계	보험대리점 및 중개인	그 외 보험 관련 업무 <sup>1)</sup>	합계	
	생명 및 건강	손해	재보험					
2014	82.9	59.5	2.5	144.9	72.0	29.7	101.7	246.6
2015	83.0	61.2	2.5	146.7	76.3	30.9	107.2	253.8
2016	81.9	64.4	2.5	148.8	78.4	32.2	110.5	259.3
2017	85.0	64.0	2.7	151.7	81.0	33.3	114.3	266.0
2018	87.1	62.2	2.9	152.2	82.5	34.4	116.9	269.0
2019	92.3	64.7	2.8	159.8	84.3	34.8	119.1	279.0

주: 청구 조정자, 보험펀드, 그 외 자문 및 보험 관련 업무 종사자  
자료: 미국 노동부

#### 4. 판매채널 관련 규정

■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겸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됨<sup>10)</sup>

- 은행과 증권브로커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보험 및 연금이 판매되면서 전속대리점의 비중이 줄어들게 됨

■ 미국에서 판매수수료율은 일반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아니나, 뉴욕 주의 경우 수수료 상한선을 두고 있음<sup>11)</sup>

- 뉴욕 주 보험업법 4228조에 따르면 대리인과 중개인의 경우에는 첫째 보험료의 91%, MGA의 경우에는 첫째 보험료의 99%의 상한선을 두고 있음

10) 안철경 외(2010. 2),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11) 김동겸(2019), "U.S. Independent Agency", Working Paper를 참고함

- 미국에서는 GA가 고객에게 모든 상품을 설명해야 하는 Best Interest(판매자의 신의성실 의무) 규정이 존재함<sup>12)</sup>
  - 이는 판매자가 할 수 있는 능력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임
  - 보험상품 구매 시점에서는 소비자가 해당 보험계약의 적합성을 인지하지 못하나, 2~3년 등의 시간이 경과한 후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 과정에서 본인이 보유한 계약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함

## 5. 판매채널 전망<sup>13)</sup>

- 기술발전, 소비자의 인식 증가, 판매채널 구조 변화, 규제 변화 등으로 인해 판매채널은 변화하고 있으며, 향후 보험회사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확대됨에 따라 보험 판매채널 또한 디지털, 원격 채널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보험회사의 고객 응대 방식, 영업 인력 구성 등의 변화가 예상됨
  - 2020년 5월 미국 내 보험 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상담원의 50% 이상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격으로 새로운 고객을 유치했다고 응답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객의 디지털 및 원격 채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디지털 채널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2020년 1월 McKinsey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의 경우 약 90%가 상담원과의 대화 및 통화를 통해 가입했다고 응답한 반면, 2020년 5월에 실시한 후속 설문조사에서는 5% 미만이 상담원과의 대화 및 통화를 통해 가입했다고 응답함

12) 김동겸(2019), "U.S. Independent Agency", Working Paper를 참고함

13) McKinsey(2020), "How Insurance Can Prepare for The Next Distribution Model"를 참고하여 작성함

- 장기적으로 보험회사는 복합 채널 활용, 디지털 채널 관련 신기술 도입, 전략적 M&A 구사를 바탕으로 채널 변화에 대응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됨
  - 대면 채널은 생명보험 분야에서 여전히 중요하지만 디지털 및 원격 채널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도 확대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를 조합한 최적의 채널 믹스 전략을 구상하고, 복합 채널을 운영할 것으로 보임
  - 디지털 채널의 확대와 인슈어테크 기업의 성장에 대응하여 보험회사는 디지털 채널 관련 기술을 신속히 개발하고 도입할 것으로 보임
  - 전략적인 M&A 결정을 통해 보험회사는 새로운 고객 유형, 새로운 제품 유형, 새로운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음

# [부록] 해외 보험산업 통계

## 1. 미국<sup>1)</sup>

### 가. 생명보험

■ 2020년 3/4분기 생명보험 신계약 보험료<sup>2)</sup>는 변액유니버설보험, 정기보험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였으며, 신계약 건수는 정기보험, 종신보험의 증가로 7.0% 증가함

〈표 1〉 미국 생명보험 분기별 신계약 보험료 및 신계약 건수 증가율

(단위: %, 백만 달러, 건)

구분	연납화 신계약 보험료			신계약 건수		
	2019	2020	증가율	2019	2020	증가율
1/4	2,578	2,588	0.0	1,442	1,425	-1.0
2/4	2,784	2,630	-6.0	1,430	1,455	2.0
3/4	2,667	2,730	2.0	1,348	1,442	7.0
4/4	3,461	-	-	1,394	-	-
합계	8,029	7,948	-1.0	4,219	4,322	2.0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LIMRA, U.S. Retail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 2020년 3/4분기 변액유니버설보험, 종신보험, 정기보험의 신계약 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지만, 유니버설보험의 신계약 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음

○ 2020년 3/4분기 종신보험이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유니버설보험, 정기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순서임

1) 미국 보험산업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2) 미국 보험시장의 규모는 신계약 연납화보험료를 기준으로 집계되는데, 연납화보험료는 일시납보험료의 10%와 정기납보험료의 합계임(연납화보험료(Annualized Premium) = 일시납보험료 × 10% + 정기납보험료)

- 신계약 건수의 경우, 유니버설보험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씩 감소하였지만,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7% 증가하였음
  - 신계약 건수의 비중은 정기보험이 45%로 가장 크며, 그 다음은 종신, 유니버설, 변액유니버설 순서임

〈표 2〉 2020년 3/4분기 미국 생명보험상품별 신계약 보험료 및 신계약 건수 증가율

(단위: %)

구분	연납화 보험료		신계약 건수	
	증가율	시장점유율	증가율	시장점유율
유니버설	-5.0	34.0	-2.0	11.0
변액유니버설	11.0	7.0	-2.0	1.0
정기	4.0	24.0	10.0	45.0
종신	7.0	35.0	7.0	43.0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LIMRA, U.S. Retail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 2020년 3/4분기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신계약 보험료 및 신계약 건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은행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
  - 은행의 신계약 보험료 및 신계약 건수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 -27%임
  - 교차판매대리점의 경우, 신계약 보험료 및 신계약 건수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 -1%임
  - Full-service Broker-dealer의 경우, 신계약 보험료 및 신계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임

〈표 3〉 2020년 3/4분기 미국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신계약 보험료 및 신계약 건수 증가율

(단위: %)

구분	연납화 보험료	신계약 건수
전속대리점	-5.0	-3.0
교차판매대리점	-3.0	-1.0
중개사	2.0	8.0
개인독립대리점	1.0	10.0

〈표 3〉 계속

(단위: %)

구분	연납화 보험료	신계약 건수
Full-service Broker-dealer	-12.0	-12.0
직접판매	15.0	15.0
은행	-29.0	-27.0
직급	-20.0	-26.0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LIMRA, U.S. Retail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 2020년 3/4분기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신계약 보험료를 살펴보면 유니버설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정기보험은 독립설계사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종신보험은 전속설계사 비중이 가장 높음

- 유니버설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과 정기보험의 독립설계사 비중은 각각 82%, 64%, 42%임
- 종신보험의 경우, 전속설계사 비중은 62%를 기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독립설계사 비중이 높음

〈표 4〉 2020년 3/4분기 미국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신계약 보험료 및 신계약 건수 시장점유율

(단위: %)

구분	연납화 보험료				신계약 건수			
	전속	독립	직접	기타	전속	독립	직접	기타
유니버설	17.0	82.0	0.0	1.0	31.0	67.0	1.0	1.0
변액유니버설	34.0	64.0	0.0	2.0	63.0	37.0	0.0	0.0
정기	37.0	42.0	7.0	14.0	44.0	31.0	10.0	15.0
종신	62.0	19.0	15.0	4.0	36.0	16.0	37.0	11.0
합계	38.0	49.0	7.0	6.0	39.0	29.0	20.0	12.0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LIMRA, U.S. Retail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 나. 손해보험

- 2020년 3/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1,71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발생손해액은 1,21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함
- 원수손해율은 70.9%로 전분기 대비 2.8%p 증가함

〈표 5〉 미국 손해보험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0	2020
		2/4	3/4
원수보험료	금액	159,690	171,264
	증가율	<sup>1)</sup> -0.4	<sup>1)</sup> 3.0
발생손해액	금액	108,807	121,465
	증가율	-1.7	6.1
원수손해율		68.1	70.9
보험영업이익	금액	1,945	-3,681
	증가율	333.2	-873.3
계약자 배당금	금액	3,572	645
	증가율	1052.3	37.8
총보험영업이익	금액	-1,627	-4,326
	증가율	-1270.5	-54175.0
이자 및 배당수익	금액	12,343	11,687
	증가율	-10.1	-13.9
실현자본이익	금액	-2,478	4,760
	증가율	-191.5	49.5
총투자영업이익	금액	9,864	16,446
	증가율	-40.0	-1.9
세전영업이익 <sup>2)</sup>	금액	10,703	7,619
	증가율	-24.6	-45.8

〈표 5〉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0	2020
		2/4	3/4
당기순이익 <sup>3)</sup>	금액	6,390	10,860
	증가율	-57.2	-28.5
자기자본 (Surplus) <sup>4)</sup>	금액	825,751	863,268
	증가율	2.9	6.4
지급준비금	금액	669,798	691,724
	증가율	4.3	6.6
자기자본이익률 <sup>5)</sup>		5.8	5.5
합산비율		100.2	101.3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세전영업이익 = 총보험영업이익 + 이자 및 배당수익 + 기타이익

3) 당기순이익 = 세전영업이익 + 실현자본이익 + 세금

4)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살펴보는 지표로 사용되며, 보험계약자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값임

5) 자기자본(Surplus)에 대한 이익률로 Rate of Return on Average Surplus로 표기함

자료: ISO(2020), "Property/Casualty Insurance Results: First-Half 2020"

■ 손해보험산업의 2020년 3/4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8.5% 감소한 109억 달러를 기록함

○ 2020년 3/4분기 총보험영업이익은 4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54,175.0% 감소함

○ 총투자영업이익은 1.9% 감소한 164억 달러임

- 이자 및 배당수익은 11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9% 감소함

- 실현자본이익은 4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9.5% 증가함

■ 2020년 3/4분기 합산비율은 전년 동기 98.8%에서 2.5%p 증가한 101.3%, 자기자본이익률은 전년 동기 7.5%에서 2.0%p 하락한 5.5%를 기록함

###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며, 본고는 이 중에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 미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건강보험이 존재하지 않아 민영건강보험이 발달해 있음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조합인 Blue Shield, Blue Cross 와 의료공급조직(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등이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건강보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영건강보험이 직장단체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정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 생명보험 마케팅연구단체(LIMRA: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함
    -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미국손해보험협회(PCI: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 와 보험요율단체(ISO: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손해보험산업 분기별 지표는 전체적인 영업성과를 중심으로 작성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	참여 회사 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 기관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84개사	80%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64개사	95%	LIMRA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20개사	-	LIMRA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	-	PCI, ISO, III

## 2. 영국<sup>3)</sup>

### 가. 생명보험<sup>4)</sup>

####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 2020년 3/4분기 생명보험 신규보험료<sup>5)</sup>는 전년 동기 대비 86.3% 감소한 41억 9,310만 파운드를 기록함

- 투자 및 저축성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63.9% 감소한 13억 180만 파운드임
  - 전체 상품 중 투자형 상품 신규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53.0% 감소하여 실적이 크게 하락하였음
  - ISA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51.5% 하락하여 3/4분기 전체 투자 및 저축성보험의 신규보험료가 감소함

- 보장성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한 2억 7,550만 파운드로 전체 상품들 중 감소 폭이 가장 낮게 나타남

■ 2020년 3/4분기 퇴직소득보험<sup>6)</sup> 신규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26.4% 감소한 26억 1,580만 파운드임

■ 연금상품<sup>7)</sup> 및 역외영업의 일시납 신규보험료에 대한 통계는 공개되지 않음

3) 영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후면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4) 영국 손해보험시장 실적은 연도별 자료만 발표되며, 해당 호에서는 다루지 않음

5) 신규보험료는 보험료 납입 방법별로 정기납 신규보험료와 일시납 신규보험료의 합계로 계산함

6) 퇴직소득(Retirement Income)보험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금을 활용하여 소득 흐름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일시납 형태만 있으며, 종신연금(Pension Annuity)과 소득인출(Income Drawdown) 상품의 합계임

7) 연금 상품은 근로자와 연금사업자 간 개인계약(Personal Contract-based)인 개인연금과 사용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퇴직연금으로 구분되며, 개인연금은 또 다시 개인의 보험료 부담형태에 따라 개인가입형(Individual Pension)과 직장가입형(Work-based Pension)으로 구분됨. 개인가입형 연금은 보험료를 전액 개인이 부담하는 형태로 Personal Pension,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SIPP(Self-Invested Personal Pension) 등이 있음. 직장가입형 연금은 보험료를 직장이 일정 부분 보조하는 형태로 Group Personal Pension,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 Group SIPP 등이 있음. 신탁형 연금(Trust-based Pension)은 신탁에 근거한 연금으로 Defined Benefit, Defined Contribution, TIP(Trustee Investment Plan), Bulk Buyout 등이 해당됨

〈표 6〉 영국 생명보험 종목별 신규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

상품 구분		2019				2020			
		2/4	3/4	4/4	연간	1/4	2/4	3/4	
투자 및 저축성보험 (Investments & Saving)	금액	3,351.8	3,605.4	3,278.1	13,364.3	3,349.0	2,168.2	1,301.8	
	증가율 <sup>1)</sup>	-6.5	8.1	4.5	-0.1	7.0	-35.3	-63.9	
	구성비	11.6	11.8	12.3	12.4	14.9	13.0	31.0	
	투자형 (Investment)	금액	1,018.3	988.8	928.8	3,918.3	904.2	468.5	464.4
		증가율	-6.5	-10.5	-7.3	-8.3	-8.0	-54.0	-53.0
		구성비	3.5	3.2	3.5	3.6	4.0	2.8	11.1
	ISA	금액	1,520.5	1,713.6	1,411.6	5,937.0	1,608.3	1,100.0	830.3
		증가율	-1.2	34.3	26.1	11.7	24.5	-27.7	-51.5
		구성비	5.2	5.6	5.3	5.5	7.2	6.6	19.8
	역외영업 (Offshore)	금액	809.3	899.4	933.7	3,494.4	832.7	597.4	-
		증가율	-15.1	-5.2	-7.9	-7.3	-2.3	-26.2	-
		구성비	2.8	2.9	3.5	3.2	3.7	3.6	-
보장성보험 (Protection)	금액	318.3	283.3	269.1	1,201.9	339.0	347.5	275.5	
	증가율	6.4	4.5	5.1	7.8	2.3	9.2	-2.8	
	구성비	1.1	0.9	1.0	1.1	1.5	2.1	6.6	
연금 (Pension)	금액	21,826.9	23,236.4	19,821.7	79,654.8	15,605.2	11,845.5	-	
	증가율	48.6	37.1	21.2	9.5	29.5	-45.7	-	
	구성비	75.2	75.7	74.6	73.9	69.6	71.1	-	
	개인가입형 (Individual)	금액	3,577.4	3,378.2	3,329.9	14,022.6	3,784.7	2,589.6	-
		증가율	-19.6	-9.8	-12.1	-18.0	1.3	-27.6	-
		구성비	12.3	11.0	12.5	13.0	16.9	15.5	-
	직장가입형 (Work-based)	금액	4,670.0	3,605.0	3,584.5	17,661.1	3,912.4	3,033.1	-
		증가율	20.2	20.0	1.7	25.5	26.8	-35.1	-
		구성비	16.1	11.8	13.5	16.4	17.4	18.2	-
	신탁형 (Trust-based)	금액	13,579.5	16,253.1	12,907.3	47,971.1	7,908.1	6,222.8	-
		증가율	113.7	59.5	42.7	15.3	51.2	-54.2	-
		구성비	46.8	53.0	48.6	44.5	35.3	37.3	-
퇴직소득보험 (Retirement Income)	금액	3,514.5	3,552.5	3,192.6	13,549.3	3,137.2	2,308.7	2,615.8	
	증가율	-0.9	-2.3	-6.1	-1.9	-4.6	-34.3	-26.4	
	구성비	12.1	11.6	12.0	12.6	14.0	13.8	62.4	
합계 <sup>2)</sup>	금액	29,011.6	30,677.5	26,561.4	107,770.3	22,430.3	16,670.0	4,193.1	
	증가율	31.2	26.8	14.7	6.6	19.3	-42.5	-86.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전체 자료는 ABI 데이터상 합계이며, 포함되지 않은 기타 자료는 위 표에 나타나 있지 않음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의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 통계 및 연도별로 발표하는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보험의 통계(연간자료만 발표)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규계약은 크게 4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규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전체 신규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므로 개인 보장성보험과 단체 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퇴직소득보험(Retirement Income)은 퇴직자의 연금 재원이 분배되는 단계의 보험으로서 종신연금(Pension Annuity)과 소득인출(Income Drawdown)로 구분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Investment & Saving	투자 및 저축성보험
Individual Pension	개인가입형 연금
Work-based Pension	직장가입형 연금
Trust-based Pension	신탁형 연금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Retirement Income	퇴직소득보험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 3. 일본

#### 가. 총괄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 FY2020 2/4분기 전체 수입보험료는 9조 8,469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함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9%, 0.03% 감소하였으나 감소율은 모두 둔화되었음
- FY2020 2/4분기 전체 지급보험금은 전년 동기 대비 26.7% 감소한 5조 6,005억 엔임
  - 생명보험 지급보험금 감소율은 확대되었으나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증가세로 전환됨

〈표 7〉 일본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단위: 억 엔, %)

구분		FY2019				FY2020	
		1/4	2/4	3/4	4/4	1/4	2/4
수입보험료	금액	105,040	103,110	100,186	103,454	90,688	98,469
	증가율 <sup>1)</sup>	-1.0	-4.5	-6.3	-7.9	-13.7	-4.5
생명보험	금액	80,096	78,567	73,487	79,927	66,197	73,933
	증가율	-2.2	-7.1	-12.2	-10.2	-17.4	-5.9
손해보험	금액 <sup>2)</sup>	24,945	24,543	26,699	23,527	24,491	24,536
	증가율	2.8	4.9	15.1	1.1	-1.8	-0.03
지급보험금	금액	77,081	76,358	82,738	83,076	56,413	56,005
	증가율	-1.1	0.4	-5.0	-1.3	-26.8	-26.7
생명보험	금액	64,323	64,035	63,863	67,694	44,515	43,482
	증가율	-3.1	3.0	-3.8	-0.9	-30.8	-32.1
손해보험	금액	12,758	12,323	18,875	15,382	11,898	12,523
	증가율	10.7	-11.2	-8.7	-3.3	-6.7	1.6

주: 1) 전년 동기 대비임

2)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및 일본손해보험협회(2021. 3. 4 기준)

## 나. 생명보험<sup>8)</sup>

### 〈신계약 가입금액〉

■ FY2020 2/4분기 생명보험 신계약 가입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14조 4,852억 엔임

○ 개인보험 신계약 가입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한 12조 4,997억 엔이며, 개인연금보험 신계약 가입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5% 감소한 1조 298억 엔을 기록함

○ 반면, 단체보험 신계약 가입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한 9,557억 엔을 기록함

〈표 8〉 일본 생명보험 신계약 가입금액

(단위: 억 엔, %)

구분			FY2019				FY2020	
			2/4	3/4	4/4	연간	1/4	2/4
개인형	개인보험	금액	123,920	120,461	123,615	497,172	72,323	124,997
		증가율 <sup>1)</sup>	-24.6	-26.3	-28.4	-25.5	-44.0	0.9
		구성비 <sup>2)</sup>	84.1	81.9	83.4	83.5	79.7	86.3
	개인연금보험	금액	13,123	12,877	14,332	52,534	4,946	10,298
		증가율	-2.2	-8.1	6.1	-0.9	-59.5	-21.5
		구성비	8.9	8.8	9.7	8.8	5.5	7.1
단체형	단체보험	금액	10,279	13,788	10,281	45,567	13,406	9,557
		증가율	-14.1	22.5	-15.9	-3.5	19.5	-7.0
		구성비	7.0	9.4	6.9	7.7	14.8	6.6
	단체연금보험	금액	1	1	0	5	51	0
		증가율	-	-50.0	-100.0	-37.5	1,600.0	-100.0
		구성비	0.0	0.0	0.0	0.0	0.1	0.0
합계	금액	147,323	147,127	148,228	595,278	90,726	144,852	
	증가율	-21.6	-20.7	-23.7	-22.4	-40.5	-1.7	
	구성비	100	100	100	100	100	100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생명보험 전체 실적 대비 구성비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8) 일본 생명보험협회가 2020년 9월부터 계약종목별 분기별 실적을 발표하지 않으므로 개인·단체 보험·연금의 신계약 가입금액을 대상으로 분석함. 여기서 가입금액은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을 의미함

- FY2020 2/4분기 생명보험 지급률<sup>9)</sup>은 전년 동기 대비 22.7%p 감소한 58.8%를 기록함
-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한 7조 3,933억 엔을 기록하였으며, 지급보험금도 전년 동기 대비 32.1% 감소한 4조 3,482억 엔을 나타냄

〈표 9〉 일본 생명보험 지급률

(단위: 억 엔, %)

구분		FY2019				FY2020	
		1/4	2/4	3/4	4/4	1/4	2/4
수입보험료	금액	80,095	78,567	73,487	79,927	66,197	73,933
	증가율 <sup>1)</sup>	-2.2	-7.1	-12.2	-10.2	-17.4	-5.9
지급보험금	금액	64,323	64,035	63,863	67,694	44,515	43,482
	증가율	-3.1	3.0	-3.8	-0.9	-30.8	-32.1
지급률 <sup>2)</sup>		80.3	81.5	86.9	84.7	67.2	58.8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자산운용〉

- FY2020 2/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전분기 399조 9,085억 엔에서 402조 6,079억 엔으로 증가함
- 각 운용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채(38.3%)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외화증권(25.8%), 회사채(7.1%), 대출금(6.7%), 주식(5.4%), 현금 및 예금(2.6%), 지방채(2.4%), 금전신탁(2.0%), 부동산(1.5%), 단기자금·매입채권(0.5%)으로 순으로 높음
- 전분기 대비 비중이 증가한 자산은 현금 및 예금, 단기자금, 금전신탁, 국채, 주식이고, 각각 전분기 2.3%에서 2.6%, 0.4%에서 0.5%, 1.9%에서 2.0%, 38.2%에서 38.3%, 5.3%에서 5.4%임
- 반면, 전분기 대비 비중이 감소한 자산은 지방채, 회사채, 외화증권, 대출금, 부동산, 비운용자산이고, 각각 전분기 2.5%에서 2.4%, 7.2%에서 7.1%, 26.0%에서 25.8%, 7.6%에서 6.7%, 2.0%에서 1.9%임
- 전분기 대비 비중이 동일한 자산은 매입금전채권(0.5%), 부동산(1.5%)임

9)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표 10〉 일본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sup>1)</sup>

(단위: 억 엔, %)

구분	FY2019						FY2020			
	2/4		3/4		4/4		1/4		2/4	
	금액	구성비								
현금 및 예금	93,526	2.4	89,078	2.2	105,323	2.7	93,227	2.3	103,342	2.6
단기자금	18,309	0.5	19,043	0.5	21,088	0.5	17,937	0.4	18,726	0.5
매입금전채권	20,151	0.5	19,200	0.5	17,892	0.5	20,457	0.5	21,671	0.5
금전신탁	68,571	1.7	75,725	1.9	69,991	1.8	76,143	1.9	81,397	2.0
유가증권	3,257,836	82.5	3,302,538	83.0	3,218,383	81.9	3,314,656	82.9	3,335,891	82.9
- 국채	1,493,243	37.8	1,497,113	37.6	1,512,025	38.5	1,527,013	38.2	1,541,830	38.3
- 지방채	106,340	2.7	103,954	2.6	101,342	2.6	99,143	2.5	96,537	2.4
- 회사채	281,856	7.1	284,575	7.2	283,831	7.2	286,232	7.2	287,852	7.1
- 주식	213,210	5.4	231,718	5.8	187,662	4.8	210,450	5.3	215,613	5.4
- 외화증권	1,003,163	25.4	1,022,055	25.7	981,284	25.0	1,038,267	26.0	1,039,217	25.8
대출금	311,596	7.9	309,489	7.8	301,986	7.7	305,044	7.6	270,329	6.7
부동산	60,444	1.5	60,489	1.5	60,489	1.5	60,527	1.5	60,536	1.5
운용자산 <sup>2)</sup>	3,865,802	97.9	3,904,784	98.1	3,831,192	97.6	3,919,202	98.0	3,949,508	98.1
비운용자산	82,388	2.1	74,314	1.9	96,159	2.4	80,306	2.0	76,571	1.9
총자산 <sup>3)</sup>	3,948,190	100.0	3,979,098	100.0	3,927,351	100.0	3,999,508	100.0	4,026,079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잔액이며,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운용자산은 상기 주요자산,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등의 합계임

3)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의 합계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 〈당기순이익, ROE, ROA〉

■ FY2020 2/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9.0% 증가한 4,443억 엔임

■ 자본이익률은 전분기에 비해 0.4%p 증가한 6.6%를 기록하였으나, 총자산이익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0.4%임

○ 자본은 26조 7,859억 엔으로 전분기 대비 3.4% 증가하였고, 총자산도 전분기 대비 0.7% 증가한 402조 6,079억 엔을 기록함

〈표 11〉 일본 생명보험 실적

(단위: 억 엔, %)

구분		FY2019				FY2020	
		1/4	2/4	3/4	4/4	1/4	2/4
당기순이익	금액	3,708	3,445	3,441	1,666	3,990	4,443
	증가율 <sup>1)</sup>	-0.7	-21.5	15.4	-73.8	7.6	29.0
자본	금액	244,940	261,325	271,412	227,157	259,127	267,859
	증가율 <sup>2)</sup>	-2.3	6.7	3.9	-16.3	14.1	3.4
총자산	금액	3,903,138	3,948,190	3,979,098	3,927,351	3,999,508	4,026,079
	증가율 <sup>2)</sup>	0.6	1.2	0.8	-1.3	1.8	0.7
자본이익률 <sup>3)</sup>		6.1	5.3	5.1	2.9	6.2	6.6
총자산이익률 <sup>3)</sup>		0.4	0.3	0.3	0.2	0.4	0.4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전분기 대비 증가율임  
 3) 연율화 수치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 다. 손해보험

### 〈원수보험료〉

■ FY2020 2/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0.03% 감소한 2조 4,536억 엔으로 집계됨

- 화재보험, 운송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1%, 2.9%, 2.4%, 4.8% 증가한 5,155억 엔, 177억 엔, 1조 470억 엔, 4,095억 엔을 기록함
- 해상보험, 자동차매상책임보험, 상해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0%, 19.6%, 9.4%, 감소한 446억 엔, 1,973억 엔, 2,221억 엔으로 집계됨

〈표 12〉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sup>1)</sup>

(단위: 억 엔, %)

구분 <sup>2)</sup>		FY2019				FY2020	
		2/4	3/4	4/4	연간	1/4	2/4
화재	보험료	4,811	4,341	3,997	17,043	3,919	5,155
	증가율 <sup>3)</sup>	18.8	3.3	3.4	8.8	0.7	7.1
	구성비	19.6	18.3	17.0	17.6	16.0	21.0
해상	보험료	519	499	514	2,125	576	446
	증가율	8.3	2.5	0.2	2.6	-3.0	-14.0
	구성비	2.1	2.1	2.2	2.2	2.4	1.8
운송	보험료	172	181	182	731	200	177
	증가율	6.8	5.3	5.7	5.8	2.1	2.9
	구성비	0.7	0.8	0.8	0.8	0.8	0.7
자동차	보험료	10,228	10,366	10,576	41,853	10,853	10,470
	증가율	1.3	1.3	1.8	1.3	1.6	2.4
	구성비	41.7	43.7	45.0	43.3	44.3	42.7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료	2,452	2,292	2,313	9,653	1,998	1,973
	증가율	5.1	-5.8	-8.0	-0.9	-23.0	-19.6
	구성비	10.0	9.7	9.8	10.0	8.2	8.0
상해	보험료	2,453	2,383	2,184	9,819	2,707	2,221
	증가율	-0.6	8.2	-2.0	0.5	-3.3	-9.4
	구성비	10.0	10.1	9.3	10.2	11.1	9.1
특종	보험료	3,907	3,636	3,760	15,490	4,239	4,095
	증가율	2.7	4.7	4.7	4.0	1.2	4.8
	구성비	15.9	15.3	16.0	16.0	17.3	16.7
합계	보험료	24,543	23,699	23,527	96,714	24,491	24,536
	증가율	4.9	2.2	1.1	2.7	-1.8	-0.0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이며,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일본의 원수정미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3)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 기준임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지급률〉

- FY2020 2/4분기 손해보험 지급률은 전년 동기 대비 0.8%p 감소한 51.0%를 기록함
-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0.03% 감소한 2조 4,536억 엔이며, 지급보험금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1조 2,523억 엔임

〈표 13〉 일본 손해보험 지급률

(단위: 억 엔, %)

구분		FY2019				FY2020	
		1/4	2/4	3/4	4/4	1/4	2/4
원수보험료	금액	24,945	24,543	23,699	23,527	24,491	24,536
	증가율 <sup>1)</sup>	2.8	4.9	2.2	1.1	-1.8	-0.03
지급보험금	금액	12,758	12,323	18,875	15,382	11,898	12,523
	증가율	10.7	-11.2	-8.7	-3.3	-6.7	1.6
지급률 <sup>2)</sup>		51.1	50.2	79.6	65.4	48.6	51.0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원수보험료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자산운용〉

- FY2020 2/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전분기 30조 6,085억 엔에서 31조 1,385억 엔으로 증가함
- 각 운용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화증권(29.2%)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식(19.1%), 국채(12.6%), 현금 및 예금(7.6%), 회사채(9.4%), 대출금(4.8%), 부동산(2.8%), 기타증권(1.7%), 지방채(1.2%), 매입금전채권(1.0%), 환매조건부채권·금전신탁(0.2%), 단기자금(0.1%) 순으로 높음
- 전분기 대비 비중이 증가한 자산은 현금 및 예금, 단기자금, 매입금전채권, 주식, 기타증권이고, 각각 전분기 7.0%에서 7.6%, 0%에서 0.1%, 0.8%에서 1.0%, 18.8%에서 19.1%, 1.6%에서 1.7%임
- 반면, 전분기 대비 비중이 감소한 자산은 국채, 외화증권, 대출금, 비운용자산이고, 각각 전분기 12.8%에서 12.6%, 29.6%에서 29.2%, 4.9%에서 4.8%, 10.7%에서 10.3%임

- 전분기 대비 비중이 동일한 자산은 환매조건부채권(0.2%), 금전신탁(0.2%), 지방채(1.2%), 회사채(9.4%), 부동산(2.8%)임

〈표 14〉 일본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sup>1)</sup>

(단위: 억 엔, %)

구분	FY2019						FY2020			
	2/4		3/4		4/4		1/4		2/4	
	금액	구성비								
현금 및 예금	24,437	7.8	20,803	6.6	22,076	7.2	21,300	7.0	23,520	7.6
단기자금	1	0.0	50	0.0	104	0.0	150	0.0	201	0.1
환매조건부채권	630	0.2	770	0.2	710	0.2	710	0.2	680	0.2
매입금전채권	3,313	1.1	2,785	0.9	1,866	0.6	2,529	0.8	3,176	1.0
금전신탁	632	0.2	624	0.2	535	0.2	532	0.2	553	0.2
유가증권	231,938	73.8	235,236	74.5	220,757	72.0	224,642	73.4	227,811	73.2
- 국채	45,309	14.4	44,299	14.0	40,585	13.2	39,211	12.8	39,297	12.6
- 지방채	3,303	1.1	3,345	1.1	3,306	1.1	3,631	1.2	3,815	1.2
- 회사채	28,127	8.9	28,539	9.0	28,525	9.3	28,646	9.4	29,150	9.4
- 주식	64,073	20.4	67,200	21.3	54,504	17.8	57,464	18.8	59,512	19.1
- 외화증권	86,595	27.5	87,021	27.6	89,168	29.1	90,727	29.6	90,803	29.2
- 기타증권	4,531	1.4	4,832	1.5	4,670	1.5	4,963	1.6	5,233	1.7
대출금	14,317	4.6	14,877	4.7	15,051	4.9	14,900	4.9	14,833	4.8
부동산	8,536	2.7	8,486	2.7	8,567	2.8	8,608	2.8	8,689	2.8
운용자산	283,874	90.3	283,630	89.8	269,667	88.0	273,389	89.3	279,465	89.7
비운용자산 <sup>2)</sup>	30,541	9.7	32,073	10.2	36,812	12.0	32,695	10.7	31,919	10.3
총자산	314,416	100.0	315,703	100.0	306,480	100.0	306,085	100.0	311,385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누적 잔액이며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비운용자산은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자산, 지불승낙담보 등임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http://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http://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부정기적으로 공개되는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계약 가입금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險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현황(主要資産運用狀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險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險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險会社資金運用狀況一覽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은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성보험과 단체성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형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險)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險)으로, 단체형보험은 단체보험(団体保險), 단체연금보험(団体年金保險)으로 분류함
  - 단체형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險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險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險)	특종보험

## 4. 중국<sup>10)</sup>

### 가. 총괄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

- 2020년 3/4분기 전체 수입보험료는 9,80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함
  - 2020년 3/4분기 인보험 및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모두 2/4분기에 비해 하락함
- 2020년 3/4분기 전체 지급보험금은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한 3,681억 위안임
  - 2020년 3/4분기 인보험 및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4분기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함
- 2020년 3/4분기 사업비는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한 1,527억 위안으로 집계됨

〈표 15〉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9			2020		
		3/4	4/4	연간	1/4	2/4	3/4
수입보험료	금액	8,983	8,125	42,645	16,695	10,491	9,804
	증가율 <sup>1)</sup>	8.3	10.5	12.2	2.3	13.8	9.1
인보험	금액	6,218	5,133	30,995	13,734	7,245	6,789
	증가율	8.5	11.9	13.8	2.7	15.5	9.2
손해보험	금액	2,765	2,991	11,649	2,962	3,245	3,015
	증가율	7.9	8.1	8.2	0.3	10.4	9.0
지급보험금	금액	3,179	3,483	12,894	3,031	3,277	3,681
	증가율	1.2	9.9	4.8	-8.6	12.5	15.8
인보험	금액	1,557	1,521	6,392	1,770	1,554	1,778
	증가율	-3.9	7.1	-0.1	-6.4	9.2	14.2
손해보험	금액	1,622	1,962	6,502	1,261	1,723	1,903
	증가율	6.6	12.3	10.3	-11.7	15.6	17.3
사업비	금액	1,256	1,699	5,491	1,246	1,342	1,527
	증가율	6.9	14.7	16.4	-1.7	5.8	21.6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10) 중국 보험산업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및 중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자산운용〉

- 2020년 3/4분기 총자산은 전분기 대비 2.1% 증가한 22조 4,386억 위안으로 나타남
  - 이 중 운용자산은 20조 7,062억 위안으로 전분기 대비 2.9% 증가하였고, 비운용자산은 전분기 대비 6.6% 감소한 1조 7,324억 위안임
- 운용자산 중 예치금 및 주식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였으나 채권 및 기타 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함
  - 예치금 및 주식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분기 대비 1.3%p, 0.3%p 하락한 11.5%, 11.9%를 기록하였으나 총자산 대비 채권 및 기타 자산의 비중은 각각 전분기 31.7%, 34.8%에서 33.8%, 35.1%로 상승함

〈표 16〉 중국 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sup>1)</sup>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9			2020		
		3/4	4/4	연간	1/4	2/4	3/4
운용자산계	금액	177,772	185,271	185,271	194,255	201,251	207,062
	증가율 <sup>2)</sup>	2.4	4.2	12.9	4.8	3.6	2.9
	구성비	89.1	90.1	90.1	89.4	91.6	92.3
예치금	금액	25,213	25,227	25,227	28,621	28,152	25,796
	증가율	-4.3	0.1	3.5	13.5	-1.6	-8.4
	구성비	12.6	12.3	12.3	13.2	12.8	11.5
채권	금액	61,427	64,032	64,032	66,765	69,700	75,766
	증가율	2.7	4.2	13.6	4.3	4.4	8.7
	구성비	30.8	31.1	31.1	30.7	31.7	33.8
주식 <sup>3)</sup>	금액	22,377	24,365	24,365	24,897	26,828	26,762
	증가율	2.2	8.9	26.8	2.2	7.8	-0.2
	구성비	11.2	11.8	11.8	11.5	12.2	11.9
기타 자산 <sup>4)</sup>	금액	68,755	71,647	71,647	73,972	76,571	78,738
	증가율	4.8	4.2	11.7	3.2	3.5	2.8
	구성비	34.4	34.8	34.8	34.1	34.8	35.1
비운용자산계 <sup>5)</sup>	금액	21,829	20,374	20,374	22,938	18,541	17,324
	증가율	2.2	-6.7	6.0	12.6	-19.2	-6.6
	구성비	10.9	9.9	9.9	10.6	8.4	7.7
총자산	금액	199,601	205,645	205,645	217,193	219,792	224,386
	증가율	2.3	3.0	12.2	5.6	1.2	2.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말잔액 기준  
 2) 전분기 대비 증가율  
 3) 주식은 주식형 펀드를 포함함  
 4) 기타 자산은 부동산, 인프라시설 자산 등이 있음  
 5) 비운용자산은 미수금, 장기주식투자, 유무형 자산 등임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나. 인보험<sup>11)</sup>

### 〈수입보험료〉

■ 2020년 3/4분기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6,79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함

■ 2020년 3/4분기 인보험 중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모두 증가함

○ 2020년 3/4분기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1%, 12.1% 증가했지만 2/4분기에 비해 증가율이 하락함

○ 2020년 3/4분기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 해소로 2/4분기 하락세 (-0.7%)에서 증가세(9.3%)로 전환됨

〈표 17〉 인보험 수입보험료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9			2020		
		3/4	4/4	연간	1/4	2/4	3/4
인보험	보험료	6,218	5,133	30,995	13,734	7,244	6,790
	증가율 <sup>1)</sup>	8.5	11.9	13.8	2.7	15.4	9.2
생명보험	보험료	4,227	3,591	22,754	10,798	4,821	4,568
	증가율	2.4	11.1	9.8	-0.6	15.8	8.1
건강보험	보험료	1,701	1,389	7,066	2,640	2,119	1,907
	증가율	29.1	25.0	29.7	21.5	17.5	12.1
상해보험	보험료	289	245	1,175	295	305	316
	증가율	1.8	0.0	9.2	-11.7	-0.7	9.3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11) 중국의 인보험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며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함. 중국의 생명보험은 크게 전통형 상품과 투자형 상품으로 구분됨. 배당금이 없는 정기보험, 종신보험, 양로보험, 연금보험은 전통형 상품으로 구분되며 투자형 상품에는 배당형 상품, 투자연계형 상품, 유니버설 상품 등이 있음. 중국의 건강보험은 한국과 유사하며 의료보험, 질병보험, 소득보장보험, 간병보험 등이 있음

〈지급보험금〉

- 2020년 3/4분기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1,77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함
- 인보험 중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지급보험금은 각각 890억 위안, 803억 위안 및 8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30.1% 및 14.7% 증가함

〈표 18〉 인보험 지급보험금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9			2020		
		3/4	4/4	연간	1/4	2/4	3/4
인보험	보험금	1,557	1,521	6,392	1,770	1,554	1,778
	증가율 <sup>1)</sup>	-3.9	7.1	-0.1	-6.4	9.2	14.2
생명보험	보험금	865	726	3,743	1,165	859	890
	증가율	-21.4	-9.2	-14.7	-11.4	2.6	2.9
건강보험	보험금	617	714	2,351	541	614	803
	증가율	37.0	30.0	34.8	7.3	19.0	30.1
상해보험	보험금	75	80	298	64	81	86
	증가율	6.3	10.5	11.3	-11.1	14.1	14.7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20년 3/4분기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54.4%로 전분기 대비 2.5%p 상승함
- 상위 5개사는 China Life, China Pingan Life, Qianhai Life, Sino Life 및 CPIC Life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16.4%, 13.7%, 10.3%, 7.2% 및 6.7%임
- 한편, 나머지 생명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 48.1%에서 45.6%로 하락함

〈표 19〉 생명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sup>1)</sup>

(단위: %)

구분		2019		2020		
		3/4	4/4	1/4	2/4	3/4
상위 5개사	점유율	54.9	53.7	53.1	51.9	54.4
나머지 회사	점유율	45.1	46.3	46.9	48.1	45.6

주: 시장점유율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당기순이익, 자본, 자본이익률〉

- 2020년 3/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자본이익률은 5.7%로 전분기에 비해 0.7%p 상승함
-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716억 위안에서 824억 위안으로 증가하였으며  
자본은 전분기 1조 4,412억 위안에서 1조 4,552억 위안으로 상승함

〈표 20〉 생명보험회사 실적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9			2020		
		3/4	4/4	연간	1/4	2/4	3/4
당기순이익 <sup>1)</sup>	금액	719	122	2,412	672	716	824
자본 <sup>2)</sup>	금액	13,665	13,858	13,858	14,077	14,412	14,552
자본이익률		5.3	0.9	17.4	4.8	5.0	5.7

주: 1) 당기순이익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2) 기말잔액 기준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다. 손해보험

#### 〈수입보험료<sup>12)</sup>〉

- 2020년 3/4분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3,01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함
- 2020년 3/4분기 손해보험 중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및 기타 보험의 비중은 전분기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기업재산보험, 기술보험 및 농업보험의 비중은 하락함
  -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및 기타 보험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분기 66.0%, 5.2% 및 4.3%에서 70.5%, 6.6% 및 4.6%로 상승함
  - 반면 기업재산보험, 기술보험 및 농업보험의 비중은 각각 전분기 대비 0.4%p, 0.2%p, 5.5%p 하락한 3.7%, 1.1%, 5.5%를 기록함
  - 한편, 가계재산보험 및 책임보험은 전분기와 같은 비중을 유지함

12) 중국은 원수보험료가 아니고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손해보험의 보험료를 발표하고 있음

〈표 21〉 손해보험 수입보험료<sup>1)</sup>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9			2020		
		3/4	4/4	연간	1/4	2/4	3/4
손해보험	보험료	2,765	2,991	11,649	2,962	3,245	3,014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업재산보험	보험료	106	67	464	173	134	113
	비중	3.8	2.2	4.0	5.8	4.1	3.7
가계재산보험	보험료	19	20	91	29	23	20
	비중	0.7	0.7	0.8	1.0	0.7	0.7
자동차보험	보험료	1,949	2,273	8,188	1,939	2,143	2,126
	비중	70.5	76.0	70.3	65.5	66.0	70.5
기술보험	보험료	25	21	118	42	41	33
	비중	0.9	0.7	1.0	1.4	1.3	1.1
책임보험	보험료	173	161	753	241	238	219
	비중	6.3	5.4	6.5	8.1	7.3	7.3
보증보험	보험료	255	216	844	199	170	198
	비중	9.2	7.2	7.2	6.7	5.2	6.6
농업보험	보험료	137	89	672	187	356	167
	비중	5.0	3.0	5.8	6.3	11.0	5.5
기타 보험 <sup>2)</sup>	보험료	101	144	519	152	140	138
	비중	3.7	4.8	4.5	5.1	4.3	4.6

주: 1) 종목별 수입보험료가 2019년부터 공개되기 때문에 종목별 수입보험료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계산할 수 없음  
 2) 기타 보험은 운송보험, 특종보험 등이 있음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 2020년 3/4분기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1,90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함

〈표 22〉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9			2020		
		3/4	4/4	연간	1/4	2/4	3/4
손해보험	보험금	1,622	1,962	6,502	1,261	1,723	1,903
	증가율 <sup>1)</sup>	6.6	12.3	10.3	-11.7	15.6	17.3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20년 3/4분기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70.8%로 전분기 대비 2.9%p 하락함

○ 상위 5개사는 PICC, China Pingan P&C, CPIC P&C, China Life P&C 및 China Continent P&C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8.4%, 21.7%, 10.9%, 6.1%, 3.7%임

○ 한편, 나머지 손해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 26.3%에서 29.2%로 상승함

〈표 23〉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sup>1)</sup>

(단위: %)

구분	2019		2020		
	3/4	4/4	1/4	2/4	3/4
상위 5사	75.9	71.3	74.3	73.7	70.8
나머지 회사	24.1	28.7	25.7	26.3	29.2

주: 1) 시장점유율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당기순이익, 자본, 자본이익률〉

■ 2020년 3/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자본이익률은 1.7%로 전분기에 비해 1.0%p 하락함

○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151억 위안에서 96억 위안으로 하락하였으나, 자본은 전분기 5,526억 위안에서 5,658억 위안으로 상승함

〈표 24〉 손해보험회사 실적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9			2020		
		3/4	4/4	연간	1/4	2/4	3/4
당기순이익 <sup>1)</sup>	금액	110	101	548	157	151	96
자본 <sup>2)</sup>	금액	5,466	5,724	5,724	5,793	5,526	5,658
자본이익률		2.0	1.8	9.6	2.7	2.7	1.7

주: 1) 당기순이익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2) 기말잔액 기준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產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및 중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자산운용 분석을 위해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산업경영현황표(保險業經營情況表), 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人身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 및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財產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를 사용함
  - 보험회사의 그룹별 시장점유율, 당기순이익, 자본 및 자본이익률 분석을 위해 중국보험협회가 발표한 지급능력정보공개(偿付能力信息披露)를 사용함
-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 및 손해보험을 종목별 분석함
  - 인보험은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손해보험은 기업재산보험, 가계재산보험, 자동차보험, 기술보험, 책임보험, 보증보험, 농업보험, 기타보험(운송보험, 특종보험 등)으로 분류해 기술함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재산보험(財產保險)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險)	인보험
인신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傷害保險)	상해보험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로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와 다소 다를 수 있음

## 5. 호주

### 가. 총괄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 2020년 3/4분기 전체 수입보험료는 약 162억 호주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0% 감소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3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소폭(3.0%) 증가함
- 2020년 3/4분기 전체 지급보험금은 전년 동기 대비 24.1% 감소한 약 115억 호주달러임
  - 생명보험 지급보험금이 전년 동기 대비 37.0% 감소하였고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소폭(1.4%) 감소함

〈표 25〉 호주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단위: 백만 호주달러, %)

구분		2019				2020		
		2/4	3/4	4/4	연간	1/4	2/4	3/4
수입보험료	금액	19,777	18,165	18,200	73,475	15,782	17,547	16,166
	증가율 <sup>1)</sup>	-15.7	-8.8	-7.8	-9.7	-8.9	-11.3	-11.0
생명보험	금액	7,691	7,411	7,073	30,200	6,033	5,369	5,091
	증가율	-35.9	-25.3	-24.2	-25.2	-24.8	-30.2	-31.3
손해보험	금액 <sup>2)</sup>	12,086	10,754	11,127	43,275	9,749	12,178	11,075
	증가율	5.4	7.5	6.9	5.6	4.7	0.8	3.0
지급보험금	금액	13,680	15,126	15,589	60,003	20,249	68,733	11,477
	증가율	-11.7	-3.9	-4.9	-2.2	29.7	402.4	-24.1
생명보험	금액	8,571	9,653	9,560	37,308	13,183	63,669	6,082
	증가율	-24.0	-11.3	-8.3	-9.3	38.4	642.8	-37.0
손해보험	금액	5,109	5,473	6,029	22,695	7,066	5,064	5,395
	증가율	21.1	12.8	1.0	12.3	16.1	-0.9	-1.4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2)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자료: 호주 APRA

## 나. 생명보험

### 〈지급률〉

- 2020년 3/4분기 생명보험 지급률은 전년 동기 대비 8.3%p 감소한 119.5%를 기록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31.3% 감소한 약 51억 호주달러였으며 지급보험금은 37.0% 감소한 약 61억 호주달러를 기록함

〈표 26〉 호주 생명보험 지급률

(단위: 백만 호주달러, %)

구분		2019				2020		
		2/4	3/4	4/4	연간	1/4	2/4	3/4
수입보험료	금액	7,691	7,411	7,073	30,200	6,033	5,369	5,091
	증가율 <sup>1)</sup>	-35.9	-25.3	-24.2	-25.2	-24.8	-30.2	-31.3
지급보험금	금액	8,571	9,653	9,560	37,308	13,183	63,669	6,082
	증가율	-24.0	-11.3	-8.3	-9.3	38.4	642.8	-37.0
지급률 <sup>2)</sup>		111.4	130.3	135.2	123.5	218.5	1186.0	119.5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2)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자료: 호주 APRA

### 〈자산운용〉

- 2020년 3/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전분기 1,228억 호주달러에서 1,223억 호주달러로 감소함
- 총자산 중株式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17.1%에서 16.6%로 하락함
- 총자산 중 현금 및 예금과 재보험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분기 5.1%, 9.5%에서 5.3%, 9.9%로 상승함

〈표 27〉 호주 생명보험회사 자산구성

(단위: 백만 호주달러, %)

구분	2019				2020					
	3/4		4/4		1/4		2/4		3/4	
	금액	구성비								
현금 및 예금	7,783	3.9	7,561	3.9	7,454	4.2	6,306	5.1	6,516	5.3
투자자산	170,593	86.4	170,040	86.6	150,767	84.3	96,296	78.4	95,220	77.9
- 채권	73,960	37.4	73,665	37.5	72,747	40.7	69,139	56.3	68,855	56.3
- 주식	88,353	44.7	88,162	44.9	70,784	39.6	20,943	17.1	20,318	16.6
- 부동산	7,206	3.6	7,204	3.7	6,354	3.6	5,459	4.4	5,358	4.4
- 기타	1,075	0.5	1,009	0.5	882	0.5	756	0.6	689	0.6
기타자산	8,000	4.1	8,492	4.3	9,403	5.3	8,521	6.9	8,371	6.8
재보험자산	11,129	5.6	10,294	5.2	11,141	6.2	11,643	9.5	12,165	9.9
총자산	197,505	100.0	196,388	100.0	178,764	100.0	122,767	100.0	122,271	100.0

주: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잔액임  
 자료: 호주 APRA

## 〈생명보험 실적〉

■ 2020년 3/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47.8% 증가한 약 5,500만 호주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2020년 3/4분기 생명보험회사 자본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7.4%p 감소한 1.0%를 기록함  
 ○ 자본은 약 225억 호주달러로 전분기 대비 1.1%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88.2% 감소함

〈표 28〉 호주 생명보험회사 실적

(단위: 백만 호주달러, %)

구분		2019			2020		
		2/4	3/4	4/4	1/4	2/4	3/4
당기순이익	금액	201	-10	-997	-801	466	55
	증가율 <sup>1)</sup>	-62.5	-106.2	-735.2	-256.5	131.9	647.8
자본	금액	22,487	22,435	21,818	21,360	22,287	22,523
	증가율 <sup>2)</sup>	1.4	-0.2	-2.8	-2.1	4.3	1.1
총자산	금액	196,066	197,505	196,388	178,716	122,767	122,271
	증가율 <sup>2)</sup>	-13.6	0.7	-0.6	-9.0	-31.3	-0.4
자본이익률 <sup>3)</sup>		3.6	-0.2	-18.3	-15.0	8.4	1.0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2) 전분기 대비 증가율

3) 연율화 수치임[(해당 분기 당기순이익 × 4) / 자본] × 100]

자료: 호주 APRA

## 다. 손해보험

### 〈원수보험료〉

- 2020년 3/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약 111억 호주달러로 집계됨
  - 자동차 배상책임보험, 기타 특종보험을 제외한 종목별 손해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배상책임보험과 기타 특종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와 21.6% 감소하였음
  - 주택담보대출 신용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한 약 2.7억 호주달러로 3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임
  
- 가계성 보험이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47.5%를 차지함
  - 가계성 재산보험과 개인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가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2.6%, 24.9%를 기록함

### 〈손해율〉

- 2020년 3/4분기 손해보험 보유손해율<sup>13)</sup>은 전년 동기와 동일한 63%를 기록함
  - 2020년 3/4분기 자동차 배상책임보험과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보유손해율은 각각 96%와 88%를 기록함
  
- 2020년 3/4분기 손해보험 합산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3%p 감소한 89%를 기록함
  - 2020년 3/4분기 기업성 재산보험, 자동차 배상책임보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의 합산비율은 각각 107%, 110%, 109%, 103%를 기록함

13) 보유손해율(Net Loss Ratio)이란 보유발생보험금(Net Incurred Claims)을 보유경과보험료(Net Earned Premium)로 나눈 값을 의미함

〈표 29〉 호주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백만 호주달러, %)

구분		2019				2020		
		2/4	3/4	4/4	연간	1/4	2/4	3/4
가계성 재산보험	보험료	2,336	2,330	2,431	9,286	2,347	2,459	2,504
	증가율	5.4	6.5	4.9	5.2	7.2	5.3	7.5
	구성비	19.3	21.7	21.8	21.5	24.1	20.2	22.6
개인 자동차보험	보험료	2,645	2,659	2,493	10,399	2,698	2,672	2,755
	증가율	5.0	6.0	3.1	4.8	3.7	1.0	3.6
	구성비	21.9	24.7	22.4	24.0	27.7	21.9	24.9
기업성 재산보험	보험료	1,484	1,315	1,452	5,074	912	1,651	1,366
	증가율	14.9	14.1	15.6	14.0	10.8	11.3	3.9
	구성비	12.3	12.2	13.0	11.7	9.4	13.6	12.3
상업용 자동차보험	보험료	838	667	705	2,782	604	860	717
	증가율	5.1	7.2	4.0	5.2	5.6	2.6	7.5
	구성비	6.9	6.2	6.3	6.4	6.2	7.1	6.5
자동차 배상책임보험	보험료	745	904	814	3,383	796	866	873
	증가율	-17.5	-0.4	-0.5	-5.3	-13.5	16.2	-3.4
	구성비	6.2	8.4	7.3	7.8	8.2	7.1	7.9
일반 및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보험료	785	636	647	2,583	571	798	730
	증가율	8.4	5.3	6.1	5.9	10.9	1.7	14.8
	구성비	6.5	5.9	5.8	6.0	5.9	6.6	6.6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보험료	819	596	744	2,424	372	943	653
	증가율	8.9	38.0	26.1	17.6	40.4	15.1	9.6
	구성비	6.8	5.5	6.7	5.6	3.8	7.7	5.9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보험료	993	352	318	1,908	235	906	365
	증가율	12.6	8.6	0.0	7.9	-4.1	-8.8	3.7
	구성비	8.2	3.3	2.9	4.4	2.4	7.4	3.3
주택담보대출 신용보험	보험료	209	225	274	890	229	238	273
	증가율	-8.7	2.3	20.2	0.6	25.8	13.9	21.3
	구성비	1.7	2.1	2.5	2.1	2.3	2.0	2.5
기타 특종	보험료	1,232	1,070	1,249	4,546	985	785	839
	증가율	6.9	2.4	6.2	3.4	-1.0	-36.3	-21.6
	구성비	10.2	9.9	11.2	10.5	10.1	6.4	7.6
합계	보험료	12,086	10,754	11,127	43,275	9,749	12,178	11,075
	증가율	5.4	7.5	6.9	5.6	4.7	0.8	3.0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 기준임  
자료: 호주 APRA

〈표 30〉 호주 손해보험 보유손해율과 사업비율

(단위: %)

구분		2019		2020		
		3/4	4/4	1/4	2/4	3/4
가계성 재산보험	보유손해율	54	96	81	64	57
	사업비율	28	27	26	27	29
	합산비율	81	123	107	91	86
개인 자동차보험	보유손해율	68	75	76	48	54
	사업비율	21	19	19	20	23
	합산비율	89	94	95	68	76
기업성 재산보험	보유손해율	47	69	84	90	69
	사업비율	36	37	37	38	38
	합산비율	83	106	121	128	107
상업용 자동차보험	보유손해율	64	64	74	48	57
	사업비율	25	22	24	23	28
	합산비율	89	86	98	71	84
자동차 배상책임보험	보유손해율	99	47	110	63	96
	사업비율	12	15	12	20	14
	합산비율	111	62	121	83	110
일반 및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보유손해율	76	59	95	97	65
	사업비율	31	25	30	29	29
	합산비율	107	84	125	127	94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보유손해율	75	71	91	70	88
	사업비율	22	15	17	21	20
	합산비율	98	86	107	91	109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보유손해율	106	49	98	69	86
	사업비율	14	17	15	15	17
	합산비율	120	67	113	84	103
주택담보대출 신용보험	보유손해율	44	35	39	70	73
	사업비율	12	8	167	5	-2
	합산비율	56	43	206	75	72
기타 특종	보유손해율	51	52	66	57	44
	사업비율	42	38	37	44	36
	합산비율	93	90	103	101	80
합계	보유손해율	66	69	85	63	63
	사업비율	26	24	27	26	26
	합산비율	92	93	112	89	89

주: 보유손해율(Net Loss Ratio)이란 보유발생보험금(Net Incurred Claims)을 보유경과보험료(Net Earned Premium)로 나눈 값을 의미함  
 자료: 호주 APRA

## 〈자산운용〉

■ 2020년 3/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전체 운용자산은 전분기 704억 호주달러에서 722억 호주달러로 상승함

- 2020년 3/4분기 채권형 운용자산이 손해보험 운용자산의 7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채권형 운용자산에 이어 간접투자자산의 비중은 17.0%, 대출채권은 3.4%, 주식형 자산 1.0%, 부동산 0.2%임

■ 2020년 3/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은 3.5%로 전년 동기 대비 1.2%p 감소

- 손해보험회사의 직접투자자산 운용수익률은 3.5%이며 간접투자자산의 운용수익률은 3.6%로 나타남

〈표 31〉 호주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백만 호주달러, %)

구분	2019				2020					
	3/4		4/4		1/4		2/4		3/4	
	금액	구성비								
채권형 운용자산	53,981	77.9	54,429	77.5	55,496	78.9	55,553	78.9	56,292	77.9
-현금 및 예금	4,410	6.4	4,405	6.3	5,086	7.2	4,546	6.5	5,039	7.0
-회사채	15,130	21.8	13,938	19.8	13,528	19.2	13,534	19.2	13,760	19.0
-국채	21,918	31.6	22,956	32.7	23,777	33.8	22,996	32.7	23,279	32.2
-기타 유가증권	12,524	18.1	13,129	18.7	13,105	18.6	14,477	20.6	14,214	19.7
주식형 운용자산	1,407	2.0	1,324	1.9	939	1.3	859	1.2	689	1.0
-상장 후순위 채권	280	0.4	283	0.4	243	0.3	275	0.4	180	0.2
-비상장후순위 채권	238	0.3	227	0.3	43	0.1	44	0.1	155	0.2
-상장주식	816	1.2	739	1.1	577	0.8	482	0.7	294	0.4
-비상장주식	73	0.1	75	0.1	76	0.1	59	0.1	60	0.1
간접투자자산	10,900	15.7	11,100	15.8	10,714	15.2	11,122	15.8	12,284	17.0
-현금 및 예금	1,042	1.5	1,094	1.6	1,747	2.5	2,775	3.9	3,000	4.2
-채권	6,381	9.2	6,175	8.8	5,599	8.0	5,611	8.0	6,713	9.3
-주식	2,095	3.0	2,391	3.4	1,964	2.8	1,506	2.1	1,311	1.8
-부동산	918	1.3	961	1.4	947	1.3	916	1.3	936	1.3
-기타	465	0.7	478	0.7	457	0.6	314	0.4	324	0.4

〈표 31〉 계속

(단위: 백만 호주달러, %)

구분	2019				2020					
	3/4		4/4		1/4		2/4		3/4	
	금액	구성비								
부동산	113	0.2	119	0.2	117	0.2	116	0.2	115	0.2
대출채권	2,435	3.5	2,855	4.1	2,609	3.7	2,328	3.3	2,429	3.4
기타자산	441	0.6	435	0.6	435	0.6	436	0.6	436	0.6
운용자산	69,277	100.0	70,261	100.0	70,310	100.0	70,415	100.0	72,245	100.0
투자수익률	4.7	-	0.0	-	-0.5	-	3.9	-	3.5	-
-직접투자수익률	4.7	-	-0.4	-	3.2	-	3.2	-	3.5	-
-간접투자수익률	5.2	-	2.1	-	-20.5	-	7.7	-	3.6	-

자료: 호주 APRA

〈손해보험 실적〉

■ 2020년 3/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8% 감소한 약 7억 호주 달러를 기록함

■ 2020년 3/4분기 손해보험회사 자본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1.6%p 감소한 11.7%를 기록함  
 ○ 자본이 약 241억 호주달러로 전분기 대비 3.4%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9.0% 감소함

〈표 32〉 호주 원수손해보험회사 실적

(단위: 백만 호주달러, %)

구분		2019			2020		
		2/4	3/4	4/4	1/4	2/4	3/4
당기순이익	금액	1,332	821	63	-933	778	708
	증가율 <sup>1)</sup>	-5.9	-15.4	-62.9	-268.1	-41.6	-13.8
자본	금액	24,349	23,865	23,424	22,447	23,348	24,133
	증가율 <sup>2)</sup>	4.7	-2.0	-1.9	-4.2	4.0	3.4
총자산	금액	114,629	114,017	115,645	118,275	120,986	121,453
	증가율 <sup>2)</sup>	2.9	-0.5	1.4	2.3	2.3	0.4
자본이익률 <sup>3)</sup>		22.4	13.6	1.1	-16.6	13.3	11.7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2) 전분기 대비 증가율

3) 연율화 수치임[(해당 분기 당기순이익 × 4) / 자본] × 100]

자료: 호주 APRA

## 조사 개요 및 출처

- 호주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 퇴직연금(Superannuation), 건강보험,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며, 본고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다룸
- 호주의 생명보험상품은 호주의 소득보장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에 한정되어 있음
  - 호주의 생명보험상품은 소득보장체계<sup>14)</sup>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소득을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음
    - 65세 이전에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가입자가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민간 소득보상상품을 통해 영구적·일시적으로 소득을 보장받음
  - 개인연금도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개인연금 보험료는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에 포함하지 않음
    - 퇴직연금제도하에서 사용자가 납부한 부분은 퇴직연금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부분은 개인연금으로 분류됨
    - 퇴직연금의 사용자 법정기여율은 9.5%(2020년 기준)이며, 2025년에는 사용자의 법정기여율이 12%까지 상승할 예정임
- 본고에서는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호주 APRA는 생명보험의 신계약 보험료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보험료만 나타냄
    - 호주는 90년대부터 저축성 상품을 판매를 하지 않아 생명보험상품의 대부분이 보장성상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

14) 호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3층 체계(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로 구성되어 있음

##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연회비	제공자료
법인 회원	₩3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li>- 연속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금융연구</li> <li>· 보험동향</li> <li>· 해외 보험동향</li> <li>· KOREA INSURANCE INDUSTRY</li> </ul> </li> </ul>
특별 회원	₩150,000원	
개인 회원	₩150,000원	

영문 연차보고서  
추가 제공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 가입 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 팩스 : (02)3775-9102

### 회비 납입 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 예금주: 보험연구원

### 자료 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02-3775-9113 | lsy@kiri.or.kr)



『해외 보험동향』 2021년 봄호 (통권 5호)

---

발행일	2021년 3월
발행인	안 철 경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등 록	2016년 10월 7일(등록번호 영등포 바 00140)
주 소	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연락처	대표전화 /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

ISSN 2714-0482

정가 10,000원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글로벌보험센터(☎3775-9094)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